

모여놀: Learning by Doing

«모여놀: Learning by Doing»는 실험적 교육의 거점지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에서 2019년 ‘즐거운 배움’을
이끌어 온 1년 간의 교육플랫폼 활동을 기록한 결과자료집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 결과자료집 제목 «모여놀»은
“모여놀-다”의 의미와 함께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여기에만 있는, 놀면서 배우는〉이
담겨 있습니다. 부제인 〈Learning by Doing〉은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 (John Dewey)가 제안한 개념으로,
교육에서의 실험(experiment)과 경험(expericence)을 중시하는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04	경기상상캠퍼스 소개
06	모두를 위한 · 정규프로그램 ·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 양손학교
82	여기에만 있는 · 숲속등지: 자기만의 방 · 교육 아뜰리에: 대화의 정원
104	놀면서 배우는 · 나 같이 산다 · 교육1964 개관 파티
124	아듀 2019: 다시, 그리고 같이

미래의 캠퍼스, 삶의 학교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상상캠퍼스팀장 임은옥

경기상상캠퍼스는 모두를 위한 올창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남녀노소 자유롭게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미래의 캠퍼스를 지향합니다.

문화예술 기반 활동가에게는 창업·창직 거점으로, 지역민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확장할 거점이 되기를 꿈꿉니다. 특히, 경기상상캠퍼스의 '삶의 학교'로서의 역할은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에 개관한 교육1964는 '모두를 위한,' '여기에만 있는,' '놀면서 배우는'이라는 경기상상캠퍼스의 교육의 지향점이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옛 서울대 농대의 장소성, 역사성을 살려, 숲, 환경, 도시농업, 건강 등의 콘셉트로 시작했던 경기상상캠퍼스의 시즌별 '정규 프로그램'은 이제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 대상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노동의 맛, 상상학교)'은 지역 청소년들의 메이커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손 가득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을 다시 나누는 '양손학교' 프로젝트는 사회변화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해,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참여자와 함께했습니다. 숲 안에 조성된 개인 사색의 장소인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이나, 타인과의 대화를 도모하는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전형적인 틀을 깨고, 자연과 벗 삼을 수 있는 특별한 교육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의 교육플랫폼인 교육1964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발 맞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 사회변화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교육자, 단체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의 교육플랫폼이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For All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별교육의 테마인 “모두를 위한”에는,
어린이 대상 <정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지역학교 연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양손학교>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프로그램에 어울리나요?

①

정규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상상캠퍼스 자원을 활용한 유아,
어린이, 가족 특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②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인
<노동의 맛>, <상상학교>는 경기상상캠퍼스 내 입주단체들과
협업한 특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③

양손학교

‘양손 가득 배움을 얻고, 사회로 나눈다’를 취지로 교육과
사회변화 팀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①

정규프로그램

35개 프로그램, 197회, 2,188명 | 2019년 12월 기준

양봉, 텃밭, 숲 등 경기상상캠퍼스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유아, 어린이, 가족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정규프로그램〉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진행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유아와 어린이,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꾸려졌으며, 분기별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양봉, 텃밭, 숲, 생활문화 등 경기상상캠퍼스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숲속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감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 문화예술교육자들이 직접 꾸린 커리큘럼으로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심에서 체험하기 힘든 농사와 양봉 작업 등은 주강사와 보조강사들의 전문지식과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수업인 만큼 어린 친구들이 안전하고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프로그램은 1년 간 각 교육단체들의 개성이 담긴 교육테마는 이어가되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세부 커리큘럼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쉽게 이전 분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혹은 기존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 모두 그 다음 분기에 다른 커리큘럼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1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한 〈꼬마도시농부〉는 작물심기부터 재배, 요리까지 1년간의 장기성 수업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정규프로그램은 1년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운영할지 연구한 강사진들의 노력과 도민들의 입소문이 더해져 오픈 직후 전 프로그램이 마감될 정도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도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정규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19년 1년 동안 경기도민의 문화
예술교육을 책임진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을까요?

For All

모두를 위한

2019년 함께한 정규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영·유아 대상

그림책 속으로 여행

‘예술공작소’ 김수진, 조정현

보호자와 함께 그림책 속 세상을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장난감 공작소

‘예술공작소’ 김수진, 조정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주제적인 놀이문

화를 만드는 창의적 예술활동 프로그램

동화 속으로 GO! GO!

‘کمپەني언’ 이신화, 허희명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동화 속 세상을

꾸미고, 주인공이 되어보는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꼬마 도시양봉가

도전! 나도 양봉가

‘도시 양봉가’ 김병주, 신유나

꿀벌이 주는 혜택과 꿀벌의 생태에 대해
알아보고, 꿀을 활용한 제품까지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비밀의 숲: 생태모험놀이

어름방학 생태캠프: 풀벌레교실

비밀의 숲: 가을 숲 속 여행

비밀의 숲: 겨울 숲 속의 생명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홍사원, 안혜라
경기상상캠퍼스의 숲 속에서 다양한 체
험학습을 통해 자연의 생태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 숨바꼭질

마음의 소리 숨바꼭질

겨울소리 창작자

‘소리공동체’ 지행숙, 김명화

숲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느끼고, 표
현해보고 그림, 음악, 글쓰기 등 융합 활
동을 통해 나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우쿨
렐레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악기 제작의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만든 우쿨렐레를
연주해보는 프로그램

4일 간의 아트 사이언스 모험

‘کمپەني언’ 이신화, 허희명

방학을 맞이한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진
행된 아트와 과학을 융합한 창의융합 프
로그램

디자인과 놀자

‘کمپەني언’ 이신화, 허희명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을 시도하여, 미술창작활동에 자
연스럽게 접근해나가는 프로그램

성인 대상

온 몸으로 느끼학교

‘문화예술교육가’ 김성원, 변경주

정규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성인 대상으
로 진행되는, 몸의 움직임과 표현으로 몸
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타인과 공감대
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가족 대상

꼬마 도시농부

‘도시농업관리사’ 모은선, 박지연

텃밭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심고, 가
꾸고, 요리까지 하는 1년 단위 프로그램

가족 양봉

‘도시 양봉가’ 김병주, 신유나

가족과 함께 하는 도시 속 양봉 수업으로
가족과 함께 꿀벌의 생태를 알아보고 꿀
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텃밭에서 식탁까지, 꼬마도시농부의 일기



가족과 함께 수확하는 꼬마도시농부



선생님과 함께하는 꼬마도시농부

7월 어느날.
향을 먹어요.

1.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

바질은 진한 향을 가진 작물로 5월에 모종을 심어 6월부터 수확을 했다. 잘 키운 바질 잎을 활용하여 바질 페스토와 바질스파게티를 만들어 보았다.

바질 페스토는 연한 바질 잎, 올리브오일, 잣, 마늘을 곱게 갈면 딱딱하고 만들어진다. 만든 바질 페스토는 썰처럼 바로 모닝 빵에 발라도 먹고, 바질페스토를 활용하여 삶은 스파게티 면과 해산물을 넣고 볶아주니 향긋하고 맛있는 바질 스파게티가 완성됐다.

2. 허브 모히토

수확한 다양한 허브를 찢어 탄산수와 섞으니 간단하고 맛있는 허브 모히토 음료가 완성!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수확했는데 '처음 먹어보았는데 다음에 또 먹고 싶다'고 했다.



꼬마도시농부가 만든 바질페스토 스파게티



9월 어느날.
토종 쥐 이빨 옥수수 팡팡~
팝콘으로 변신해요.

선생님이 쥐 이빨 옥수수 씨앗은 시중에 팔지 않는 귀한 토종씨앗이라고 했다. 텃밭 선생님이 작년에 채종한 씨앗으로 텃밭에 5월에 불린 씨앗을 직파해, 8월, 9월이 되자 우리보다 훌쩍 커 1미터 이상 큰 키를 자랑한다.

쥐 이빨 옥수수 알이 진한 붉은색이 되고 딱딱해져서 수확을 했다. 그리고 옥수수를 알알이 떼어내는 숙제로 내주었는데, 숙제를 하면서 이 옥수수가 왜 쥐 이빨 옥수수인지 알 수 있었다. 쥐의 이빨처럼 끝이 날카롭고 작아 붉은 재미난 이름이었다. 친구들과 내가 알알이 떼어간 옥수수를 기름에 볶자, 곧 이어 옥수수가 갑자기 펑펑 터지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뚜껑을 닫았다. 잠시 기다리니 펑-펑- 소리와 함께 붉은색 옥수수 알들이 하얀 팝콘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맛있었다.



숙제시기가 지난 늙은 호박

10월 어느날.
제때 수확하지 못한
호박의 변신

호박은 넝쿨 작물이다. 5월에 모종으로 심어 수확이 있을 때 마다 심심치 않게 애호박 수확을 해서 사랑했던 작물인데, 넝쿨에 숨어있어 못 찾은 호박들이 어느새 초록에서 노란 늙은 호박으로 변신해 있었다.

큰 호박이라 집에 가져가기 어려워, 수업시간에 바로 늙은 호박으로 호박죽 만들기를 했다. 늙은 호박을 잘라 씨앗을 빼고 껍질을 까 팔팔 끓여 찹쌀가루로 동글동글 새알심을 만들어 삶아 호박죽을 끓였다.

늙은 호박이 커서 힘들었지만 아빠의 도움으로 잘 완성했다. 뜨끈 뜨끈한 호박죽 호호 불어가며 먹고 우리 엄마는 이유식 재료로 쓰신다며 남은 호박을 가져갔고, 친구의 엄마는 호박고지 해먹는다고 가져갔다. 예상치 못한 늙은 호박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았다!



쥐이빨 옥수수로 만든 팝콘

동화속으로 GO! GO!

〈동화속으로 GO! GO!〉, 〈아트사이언스〉, 〈디자인과 놀자!〉- “컴페니언”이신화, 허희명 | 인터뷰 시기: 2019. 10.

아이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예술을 느끼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면서, 동화 속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로 이루어진

저희 ‘Companion(컴페니언)’은, 문화예술교육사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유아 창의 융합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팀입니다. 정보 전달 위주 교육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 중심의 예술교육 경험, 즉 ‘예술을 위한 경험’이라는 교육 목표를 갖고,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을 길러주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입니다.

“동화 콘텐츠가 예술과 체험으로 만나다”

라는 주제로 기획한 〈동화 속으로 Go! Go!〉, “융합창의예술 체험”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방학특강 〈4일간의 아트사이언스 모험〉, “진로체험: 생활 속 디자인은 쉽고 재미있다”라는 주제로 기획한 방학특강 〈디자인과 놀자!〉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잘 만들지 못해서” 등 여러 이유 등으로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표현의 즐거움을 일깨워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내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헛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지난 4월에 봄 학기로 했던 〈동화속으로 GO! GO!〉라는 수업에서 그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서 엄마 뒤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엄마랑 헤어져 수업에 들어오기 싫어 계속 울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발표하기 싫어하니 발표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죠.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예술을 느끼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면서, 동화 속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이의 말에 집중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아이와 수업을 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지난번 보다 더 나아지고, 얼굴빛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한 아이가, 이제는 먼저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너무나 밝은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도 그 아이는 제 앞에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규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꽉 막혀있는 교실, 세미나실, 미술실 등에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합니다. 같은 콘텐츠의 프로그램도 창문이 없고 칠판과 책상만 있는 실내와 창이 넓은 실내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의 표정부터 다르죠. 제가 다른 곳보다 더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를 선호하는 것도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복합 문화 공간,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꾸준히 계속 유지되었음 합니다.



2019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여름특강 〈아트사이언스〉는 시작 전부터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아이들도 너무나 즐겁게 수업에 임해서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업과 더불어, 이번 2019년은 기존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 된 첫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혼란스러웠으나,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원금과 세무에 대한 전문가와의 워크숍 혹은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해온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으로 간단한 전시회를 하고 끝내보니, 아이들의 창의력과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래 보존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아직 2019년 겨울학기를 남기고 있지만, 봄·여름·가을학기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좋은 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 몸으로 느낌학교

“문화예술교육가” 김성원 | 인터뷰 시기: 2019. 10.

나의 감정표현과 상태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표현하는 경험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에 한걸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었고, 이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임마스터, 움직임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원(혜라)입니다.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컨템포러리댄스 무용단 무용수, 무용학과 강의 및 안무 등 오랜 시간 전공자 강의를 하다가 일상 속 예술로서의 움직임을 다양한 대상들과 나누고 싶어 수년전부터 활발히 다양한 기관 및 대상들을 위한 움직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 몸으로 느낌학교〉는

기획주제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의 몸, 마음의 온전한 시간을 다양한 움직임과 산책을 통해 경험해보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몸을 잘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나의 주체이고 또 마음상태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표현과 상태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표현하는 경험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에 한걸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었고, 이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움직임을 생활화하시는 참여자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설렘이 컸다면, 분기를 거듭할수록 재신청을 하시며 온전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삶에 반영하시는 모습에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이 예술이 되고 문화로 변화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을 마무리하며 돌이켜보니,

전업음악을 하며, 아이를 처음으로 기관에 보내게 되면서 <온몸으로 느낌학교>의 콘셉트에 매료되어 신청한 후로 봄부터 가을시즌까지 꾸준히 참여하며 삶의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고 움직임에 적용하신 분이 기억에 남아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월급과 휴가를 일부 반납하고 외출을 끊어 이 프로그램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참여하신 분도 '사람과의 관계함이 많이 달라지고 나의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셔서 뿌듯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지난 여름 우연히 지나다 강함 클립과 움직임의 자유로움에 매료되어 신청하신 분 등 수업을 마무리하며, 신청하신 분 등 기억에 남는 수강생들이 너무나 많네요.

수업을 마무리하니,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떠오릅니다. 이번년도에 여러 변수가 많아서 그런지 수업공간과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동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몸을 활용하는 수업에 적합한 수업공간도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상캠퍼스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균형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는데 더 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합니다.



꼬마도시농부

“도시농업관리사” 모은선, 박지연 | 인터뷰 시기: 2019. 10.

수강생 자신이 작은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농산물로
수강생 가족들의 식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프로그램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농업을 매개로 한
체험형 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는 경기상상캠퍼스
에서 <꼬마도시농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꼬마도시농부의 교육을 통하여 작물을 심고, 가꾸
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 얻은 재료로 요리까지 진행하며 체
험형 수업을 하여 농업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 바른 먹거
리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맨땅에 헤딩을 하듯

작은 씨앗과 아무것도 없는 흙을 일구어 자신의 작은 텃밭
을 만들고 직접 가꾸며 흙도 만지고, 텃밭 주변의 곤충들도
관찰을 하며, 작물(생명)이 자라는 한살이 과정을 2019년 한
해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자신이 작은 텃밭을 일구
어 수확한 농산물로 수강생 가족들의 식생활에 작은 변화
를 가져온 프로그램이었죠. 또한, 1회성 수업이 아니라 1년
동안 연계한 체험형 수업이라서 회원들 간 서로 협력하고
끈끈한 소통을 할 수 있었죠.

직접 심고 가꾸어 수확한

귀이빨 옥수수로 팝콘 튀기기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신기
해하기도, 무서워하기도 하며, 투명한 냄비 뚜껑을 방패삼
아 팝콘이 펑펑 튀는 모습을 보고 짹~ 소리를 지르던 모
습들. 그리고는 튀겨진 팝콘을 먹는 아이들 장면이 1년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네요. 한 아이는 채소를 전혀 먹지 못한다
고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 작물을 활용한

요리수업을 하며 먹는 것을 강요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아
이가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호박전을 먹고 있고, 바질을
활용한 스파게티도 먹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저도 흐뭇
한 모습으로 어린이를 지켜본 적도 있어요.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황토 염색을 하려 해요”

한 번은, 흙을 활용한 천연 염색 수업을 잘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한 회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집
에서 황토 염색을 하려 하는데, 재료 구입처를 알려 달라
고...그리고 며칠 후 저희 수업 SNS에 아이들이 집에서 황
토 염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염색한 손수건은 지
인들에게 선물 하겠다며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더 나아가 회원들끼리 수
확한 작물로 요리수업을 더 하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많았
는데, 다음에는 발 요리 수업을 추가하여 수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 농사를 지어 본다는 회원들...

작은 씨앗으로부터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내년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수강생들이
도시농업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고, 먹거
리 교육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작은 식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도전! 나도 양봉가·꼬마도시양봉가

“도시 양봉가” 김병주, 신유나 | 인터뷰 시기: 2019. 10.

꿀벌이 주는 혜택, 꿀벌과 함께 사는 도시생태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어린이들이 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도시 건물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며

도시에서 꿀벌의 움직임에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꿀을 생산하는 도시양봉 전문가입니다. 꿀벌이 주는 혜택, 꿀벌과 함께 사는 도시생태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도시 옥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주는지, 주는 것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졌죠. 교육 후 아이들은 꿀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목표실현이라고 봅니다.

방충복을 입고

무섭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다가와 침이 없는 수벌을 만지던 아이, 형이랑 꼭 같이 하겠다며 참관수업 듣던 동생, 유치원생도 끼워달라며 6살 어린이를 수업에 참여시키고 기둥 뒤에서 내내 지켜보던 아빠, 꿀벌에 관한 지식을 마구 쏟아내놓으며 수업 방해하던 귀여운 아이들...1년 동안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양봉 수업을 진행하며 귀여웠던 아이들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강사의 자율성과 교육 보장성’

1년 동안 경기상상캠퍼스 정규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존에 진행했던 교육 사업들과 다르다고 느낀 점은 강사의 자율성과 교육보장성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생활1980’ 건물에서 이사하기 전에는 양봉교실이 따로 있어 좋았는데 ‘교육1964’ 건물로 이전하고서는 자재를 쌓아 놓기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예약하고 오지 않을 때는 대기자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양봉을 할 수 있는 건데, 경기상상캠퍼스는 그런 양봉수업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기에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죠. 2019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돌아켜보니 가족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여름 가족프로그램에서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한 게 아쉬운데, 다음에는 건강한 가족의 체험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캠DIY: 이 맛이 제대로 꿀맛

1년 동안 경기상상캠퍼스의
〈꼬마도시양봉가〉, 〈도전! 나도 양봉가〉, 〈가족 양봉〉
수업을 통해 꿀이 단순히 빵에 찍어먹는 꿀이 아닌,
친환경적인 생필품으로 재탄생하였다는데...



양봉 수강생들이 김병주, 신유나 강사와 함께 만들어 본 ‘꿀’아이템들은 뭐가 있을까요?



밀랍 랩

우리의 주방에는 다양한 일회용품들이 있어요. 일회용 수저,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 랩, 일회용 수세미...그 중에서도 남은 음식을 담아두거나 포장할 때 쓰는 비닐 랩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일회용품이기도 해요. 그런 랩을 비닐이 아닌, 꿀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밀랍 랩’은 꿀 코팅 덕에 방수가 되어 음식물 소스가 묻어도 빨아서 재 활용이 가능해요. 일회용 비닐 랩 대신 밀랍 랩으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해요.

밀랍 랩 만들기

- ① 면천을 준비한다.
- ② 잘 정제된 밀랍을 준비한다.
- ③ 밀랍을 강판에 갈아서 준비한다.
- ④ 천에 밀랍을 토퍼핑 하듯 올리고, 종이호일을 깔고 다리미로 녹인다.
- ⑤ 잘 말려서 음식을 쓴다.

‘꿀’ 팁.

- 혹시 쓰다가 밀랍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밀랍을 발라 다리미질해서 쓰면 돼요.
- 밀랍 랩으로 뜨거운 걸 감쌀 땐 조심! 밀랍은 65°C 이상이면 녹아요!



꿀견과

꿀과 견과류를 같이 드셔본 적 있나요? 꽤나 맛있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 김병주 강사가 꿀과 견과류의 조합을 떠올려 만든 ‘꿀 견과’는 수강생들에게 단연 1등 간식이었어요. 간단하지만 입에서 꿀조화를 이루는 ‘꿀 견과’ 함께 만들어요.

꿀견과 만들기

- ① 예쁜 병을 준비한다.
- ② 좋아하는 견과류를 담는다.
- ③ 빈 공간을 꿀로 채운다.
- ④ 두고두고 간단하게 퍼먹기!

‘꿀’ 팁.

남은 꿀 견과는 냉장보관이 아닌, 실온보관 해야 해요.



천연 꿀비누

천연비누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DIY 물건이에요. 경기상상캠퍼스 <꼬마도시양봉가>에서는 산양유 비누 베이스에 천연꿀을 첨가해 직접 만든 천연꿀비누로 수강생들의 꿀피부를 책임졌어요.

천연 꿀비누 만들기

- ① 비누 베이스를 준비한다.
- ② 비누 베이스를 녹이며 꿀을 첨가한다.
- ③ 몰드에 담아 굳힌다.

‘꿀’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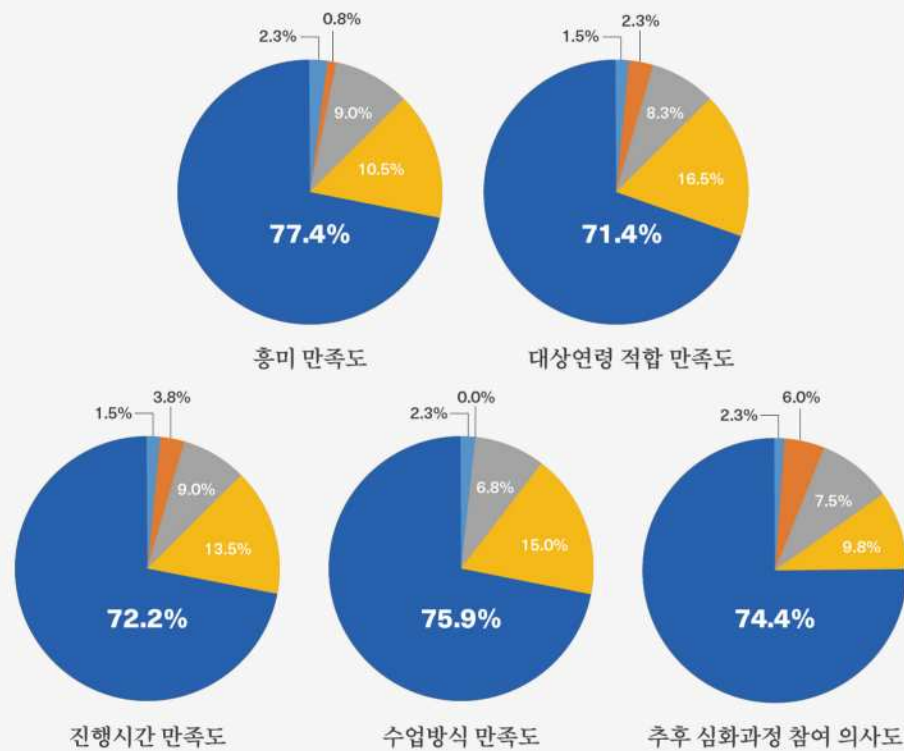
기호에 따라 에센스 오일과 향을 첨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낀 2019 정규프로그램

여러분이 느낀 2019 정규프로그램

지난 1년 간 <정규프로그램> 참여자 중 설문조사
총 응답자 133명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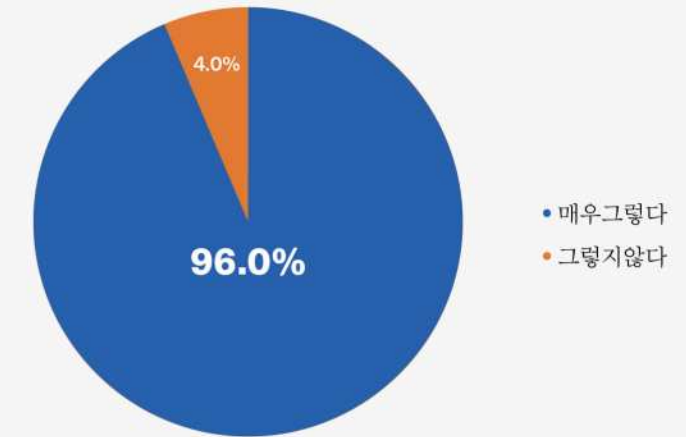
1. 만족도 조사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7.4%가 매우 그렇다, 10.5%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프로그램 대상 연령 적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1.4%가 매우 그렇다, 16.5%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시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2.2%가 매우 그렇다, 13.5%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업방식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5.9%가 매우 그렇다, 15.0%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후 심화과정 참여 의사도'를 묻는 질문에는 74.4%가 매우 그렇다, 9.8%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하 <표>의 5 문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점수를 5점 척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만족도는 4.5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분율 평균 만족도 91.04%)

2. 재참여 의향



응답자의 96.0%가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함

3. 기타 의견

- '숲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등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의견
 - '분기별 진행으로 인해 다소 짧은 프로그램 기간이 아쉽다' 등 프로그램 시간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 > 위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도에는 숲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의 기간과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규프로그램 <꼬마도시양봉가>수업



정규프로그램 <온 몸으로 느낌학교>수업



정규프로그램 <꼬마도시농부> 텃밭 수업



정규프로그램 <동화속으로 GO! GO!> 수업



정규프로그램 <비밀의 숲> 수업



정규프로그램 <장난감 공작소> 수업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22개 프로그램, 245회, 3,955명 | 2019년 12월 기준

노동의 참맛을 알려주는

청소년 메이커스 프로그램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은 지역 중학생 대상 메이커스 프로그램 〈노동의 맛〉, 〈상상학교〉로 구분되는 자유학년제 기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교과과정 중 일 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과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 진로체험과 문화예술체험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본인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 안팎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경기상상캠퍼스 내 입주단체와 협력해 상상캠퍼스만의 메이커스 커리큘럼을 만들으로써, 타 기관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경기상상캠퍼스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은 일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과정을 따르는 〈노동의 맛〉과 특수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상상학교〉로 나뉘며, 2019년에는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까지 뻗어 ‘초등 연계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동의 맛은 무엇인가요? 경기상상캠퍼스의 〈노동의 맛〉은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본인의 꿈을 쉽게 정하기 어려운 중학생들에게 목공과 매듭 등 전문기술을 갖춘 문화예술 강사들이 기본적인 메이커스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창출해냄으로써 진정한 노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경기상상캠퍼스만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상상학교〉는 특수교육기관 학생들마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뛰고 즐기며 정서적 안정과 개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도 미래를 상상하며 다양한 진로를 맞출 수 있는 흥미진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만나요!

“집에서 못하는 망치질?”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무슨 프로그램의 인터뷰일까요?

2019 노동의 맛

목공의 맛

강사: '만물작업소' 이승준, 강혜란

다양한 목공 창작물을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회성 축진을 유발하고, 목공활동에 쓰이는 도구를 다룸으로써 섬세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듭의 맛

강사: '락희공방' 김혜준, 안혜경, 이형준

실생활에 접목가능한 동서양의 매듭 공예를 통해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을 길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매듭기법의 습득 및 응용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촬영의 맛

강사: '위시' 정훈희, '투스텝스' 안성현

반 친구들이 틈을 이뤄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르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제잉의 맛

강사: '더플룸' 엄기만, 박성공

경기상상캠퍼스 내 마련된 디제잉 장비를 활용하여 쉽게 배우기 어려운 디제잉의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디제이가 되어 믹싱작업을 완성하고 결과 공유회 파티에서 작품을 뽐냄으로써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의 맛, 탐구의 맛

강사: '깃거리연구소' 이재환, 김예원

일상적인 놀이 콘텐츠 안에서 문화적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연결 짓고, 보드게임의 제작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의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or All

모두를 위한

2019년 함께한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19 상상학교

'모시부채' 프로그램

강사: '뜰별' 김희정 '달팽' 조은경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풀을 붙여 부채를 꾸미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태권도 수업

강사: 'BNISPOEDU' 남찬영, 최경원

창작 태권체조 및 음악이 가미된 유희적인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사위 놀이세트' 프로그램

강사: '깃거리연구소' 최선영, 김예원

직접 나무로 된 주사위를 꾸미고 놀이판을 만들어, 반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놀이의 발견

강사: '깃거리연구소' 이재환, 조영환

놀이가 갖는 다채로운 가능성과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의 일상적 움직임을 통해 문화 예술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질라인 체험' 프로그램

강사: 'BNISPOEDU' 백현수, 이병기

경기상상캠퍼스 내 마련된 질라인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단력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수업

강사: '뜰별' 김희정

'락희공방' 안혜경, 김혜준, 이형준
천과 싼, 그리고 은과 꽃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매듭, 은공예, 압화 공예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속 수업

강사: '락희공방' 이형준, 김혜준

다양한 색감의 재료와 금속제집로 창작물을 만들으로써 집중력을 강화하고 오감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댄스

강사: 'BNISPOEDU' 이빈규, 최경원

학생들에게 친숙한 멜로디의 배경음악과 함께 방송댄스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신체 근육의 활동량을 늘리고 정신적 건강증진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목공 수업

강사: '만물작업소' 이승준, 강혜란

원목 나무도마를 활용한 가벼운 메이킹 활동을 통해 심리 안정 및 집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봉 수업

강사: '레츠비' 김진아

안전하게 꿀벌 및 자연 생태에 대해 알아보고 도심 속에서 양봉을 체험하며 양봉의 생산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목공의 맛

“만물작업소” 이승준, 강혜란 | 인터뷰 시기: 2019. 10.

저희는 2011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2014년부터 ‘만물작업소’라는 이름으로 사진, 영상, 목공, 출판 등 다양한 도구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목공의 맛>은 경기상상캠퍼스가 지역 주민을 위해 진행하는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중 하나로, 두 학기 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공의 맛>은 몇 가지의 작은 소품부터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까지 만들며 목공작업의 기본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Q1. 현 교육 프로그램 구상할 때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목공의 맛>을 기획하며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재료를 살펴보고 도구를 다뤄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작업에서 협업의 형태까지 참여자간 유기적인 관계 지향이었어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이 사회성 성장에 축진이 되길 바랍니다.

Q2. 그렇다면 현재 목표 실현 정도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엔 강사의 역할이 적어지는 순간을 만나야 해요. 그러한 과정을 커리큘럼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목표 실현의 시작 단계 같아요. 첫 시간에 도구를 알아봤고, 내가 사용 할 예정 어린 나무망치를 만들어냈으며, 그 망치로 다시 쓰임새 있는 물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스로 생각해 둔 디자인과 설계로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고 있는데, 각자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 단계를 정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머리에 그리며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 순간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곤 해요.

Q3.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이 기존에 진행했던 교육 사업들과 다른 점은?

경기상상캠퍼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학교, 동아리는 물론이고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도 신경쓰려는 노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Q4.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교육의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목공의 맛>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프로그램 진행 공간’과, ‘교육의 인원수’입니다.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 학교수업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일 때가 많아요. 커리큘럼에 맞춰 공간이 달라지는 건 학생들에게도 환기가 되어 작업의 능률도 높아지겠지만, 상황 상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달라지는 날에는 학생도, 강사도 공간에서부터 익숙하지 않음에 평소보다 훨씬 산만한 분위기로 진행되곤 합니다. 그리고 30명에 가까운 학생과 2명의 강사가 유기적인 형태로 제작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재단되어 제공하는 목재로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죠.

Q5.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존에 비해 달라진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무망치’같이 직접 내가 쓸 공구를 만들고, 그 공구로 쓰임새 있는 물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서호중학교 친구들과 처음해보는 것이었어요. 실은 수업에 사용할 공구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할까’하다가 시작한 실험(?)같은 프로젝트였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첫 시간에 경기상상캠퍼스 숲속에서 만나서 나무를 구해 오는 것부터였지만 교복을 입고 등장한 친구들의 복장이 숲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 어울리지 않아서 축소한 것은 아쉬움이 남네요.

매듭의 맛

“락희공방” 안혜경, 김혜준, 이형준 | 인터뷰 시기: 2019. 10.



다양한 매듭기법을 활용해 생활 속 소품들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동·서양의 매듭기법을 습득합니다.

Q1. 단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락희공방’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생활예술공방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예술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은, 금속, 매듭, 압화 등 분야별 공예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과 공예교육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Q2.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노동의 맛 프로그램 중 〈매듭의 맛〉으로 서호중학교와 자유학년제 수업을, 상상학교 프로그램 중 ‘공예프로그램’으로 자혜학교와 자유학년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3. 현 교육 프로그램 구상할 때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매듭의 맛〉프로그램은 다양한 매듭기법을 활용해 생활 속 소품들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동서양의 매듭기법을 습득하고 응용해 보며 매듭을 지을 때는 힘들지만 만들어지는 과정과 완성품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상학교 프로그

램은 아이들의 표현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수공예 시간을 통해 손으로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교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Q4. 현재 Q3. 목표 실현 정도는?

락희공방의 수업은 자유학년제 수업을 통해 만나는 친구들이 완벽하게 공예를 완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예를 그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주에 한 번 만나는 시간마다 반겨주며 ‘오늘은 뭐 만들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친구들이 이 시간을 재미있어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 뿌듯합니다.

Q5.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존에 비해 달라진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비나 학습을 따라오는 학생들의 평균치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 콘텐츠는 동일하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 방식을 재구성 하여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수업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 및 표현력, 상상력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Q6. 현재 가르치는 학생들의 매력 포인트는?

순수함 속에 있는 솔직함과 예의 바른 친구들!



놀이의 발견

“깃거리연구소” 이재환, 조영환 | 인터뷰 시기: 2019. 10.



목적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감각을
체험하고 소통법을 탐구하여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Q1. 단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무한경쟁시대에, 각기 다른 생각들이 꾸준히 비칠 수 있는 현장을 인문학적 문화예술 활동으로 만드는 창작그룹입니다.

Q2.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활동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주어진 도구나 사물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각자 혹은 함께 놀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을 통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목적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감각을 체험하고 소통법을 탐구하여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Q3. 현 교육 프로그램 구상할 때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교실의 책, 걸상이 없는 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활동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활동범위를 다양하게 유도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신체 활동을 연습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참여의 동기를 유도하고자 놀이의 형식을 결합하여 대안적 실내 체육 활동에 대한 여러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습니다.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차등적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각자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Q4. 서광학교 학생들의 매력 포인트는?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수업중 학생들의 감정 표현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전보다는 훨씬 유연해짐을 느낍니다. 처음에 보였던 어색함은 점차 열어지고 심지어 몇몇 학생은 손을 잡고 팔에 매달리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일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Q5. 수업에 잘 참여해준 서광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잘 자라주길!



다시 만난 학교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담당 김유빈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의 담당자로, 참관을 위해 근 10년 만에 기본 중학교 교실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달라진 건 경기문화재단 사원증을 건 나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 학생들 정도? 학생일 적 기억이 복도마다 떠올라 반가운 나에게 그들의 고개 숙인 인사가 오히려 낯설었다.

2007년 중학생 시절 교과 밖 수업은 C.A. 활동이 전부였는데, 현재는 '자유학년제'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진로체험 활동에 할애했다. 학교를 돌아보니, 진로체험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진 2019년답게 영어 학습교실, 자유학년제 교실 등 학습테마 맞춤형 교실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

2019년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려 하지만, 모든 게 귀찮고 지루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더 넓어진 진로체험 활동이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여 <매들의 맛> 수업이 한창인 자유학년제 교실에 들어갔다.

2007년, 학교 책상에 껌 은박지를 붙이고 놀고, 가수라면 버즈와 동방신기가 최고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Q. 요즘은 무슨 아이돌 좋아해요?

학생 A: (책상 가리키며) 방탄소년단!

Q. 요즘 가정통신문도 갱지에 나와요?

학생 B: 요즘은 앱으로 하죠.

나에게는 놀랍지만 이들에게 당연한 질문을 물어본 것 같아 머쓱하면서도 자기 주관과 개성이 다양해진 2019년의 학생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져,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로 했다.

양예빈

서호중학교 1학년 3반



저는 서호중 1-3반
양혜빈이라고 합니다.
꿈은 태권도 사범.
지금 태권도 학원다니고
검은띠예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목공의 맛>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고, 1학기 때 <매듭의 맛> 했었어요.

Q1. 많은 자유학년제프로그램 중 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1학기 때 했던 친구가 추천해줘서요. 그 친구가 집에서 못하는 망치질이나 못질 같은 걸 학교에서 하니까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서 당장 했죠.

Q2.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목공의 맛>만의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공의 맛>은 여타수업과 다르게 앉아서 안 해요. 톱질작업 등 은근히 서서하는 작업이 많아요. 망치질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Q3.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럼요! <목공의 맛>스트링아트 하면서 실로 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창의성?)** 어떤 실로,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색깔도 모양도 바뀌거든요.

Q4.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뭐예요?

부모님께 작품 갖다드릴 때요. 지난 학기 <매듭의 맛> 수업 때는 '오얏꽃 만들기'를 해서 직접 만든 오얏꽃 모양의 브로치를 어버이날에 갖다드렸어요.

Q5. 경기상상캠퍼스에 와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왔나요?
네. 친구가 <매듭의 맛>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꼭 찬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방과 후 직접 '락희공방' 선생님들을 찾으러 갔었죠. <매듭의 맛> 인원 다 찾냐고 직접 물어보려고... 그런데, 결국 안 계셔서 못 보었어요.(울상)

Q6.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목공의 맛 선생님들! 저희들 잘 지도해주시고, 안전사항 잘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Q7. 내년에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목공의맛 내년에도 해서 친구들 소개시켜줄래요!

방현민

서호중학교 1학년 1반



저는 서호중 1-1반
방현민이고요,
저의 장래희망은
메이크업아티스트입니다!

저는 현재 <매듭의 맛>수업을 듣고 있고요. 1학기 때는 <목공의 맛> 했었어요. 1학기 때 <매듭의 맛>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재밌고 신기하다고해서 관심이 갔었는데, 1학기 전시회에서 작품 모아둔거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Q1. 전시 작품 중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 뭔가요?

평매듭으로 만든 시계가 제일 관심이 갔어요. '실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 너무 신기했어요.

Q2. <매듭의 맛>수업의 매력 포인트가 있나요?

각자 하는 속도가 달라도 개개인에게 맞춰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요. 매듭이 쉬워보여도 어려운 매듭은 이해가 안가는 게 많은데 세 분이서 돌아다니면서 학생 한 명씩 코치해줘요.

Q3.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시계랑 팔찌 만든 날! 시계에서 파는 것 같은 작품을 직접 만드니까 좋았어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실 색 같이 다양해서 제가 원하는 다양한 색으로 디자인 되는 게 좋았어요.

Q4. 수업 들으며 뿌듯했던 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 4자 형태로 만든 팔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더 변형시키고, 디스크이용해서 소원 팔찌 만들고, 평매듭, 꼬아 만들기 등 기법을 통해서 팔찌가 진화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발전되는 게 뿌듯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팔찌 뿐 아니라 특이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집중했을 때 제일 작품이 잘 나온 것도 뿌듯해요. **(무슨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팔찌랑 시계요. 팔찌는 길이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들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집중했던 시간을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제일 보람 있었어요.

Q5. 경기상상캠퍼스에 와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왔나요?
초등학교 때 목공부였는데, 중학교 목공부 언니들 수업을 보러갔었어요. 공방에 장비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학교 수업이요?)** 학교에서도 외부활동하면 상상캠퍼스에 자주 가요. 3D프린트, 책 만들기 등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집이랑 가까워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많이 가요.

Q6.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선생님들~ 예쁜 작품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들 덕분에 매듭수업이 재밌었어요. 특히 남자쌤, 개그코드 너무 잘 맞아요!

Q7. 경기상상캠퍼스에 원하는 점이나 개설되었으면 하는 진로 체험수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이론보다는 체험위주로 하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험하면서 이론 듣는 게 제일 이해가 잘되어요! **(메이크업 관련된 수업 원하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깐요. 되면 좋고.

유재규

소중한학교



‘소중한학교’에 다니는
유재규, 경찰이 꿈이에요.

저는 지금 경기상상캠퍼스에 와서 〈탐구의 맛〉, 〈촬영의 맛〉 수업을 듣고 있죠.

Q1.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이 타 진로체험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공부대신, 몸으로 하는 걸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야외에서 사진 찍고, 보드게임 놀이하고요.

Q2.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탐구의 맛〉 시간 때 오락게임을 했거든요? 그 오락게임을 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었어요. 스트레스 해소될 때까지 해서,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한 오만 원어치 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 가지고 와서 노래 불렀던 거요! 누나들이 노래를 잘했어요.

Q3.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보람 있던 적은? 〈탐구의 맛〉 수업 할 때 총 게임 같은 보드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운 단계를 다 성공해서 이겼답니다.

Q4.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탐구의 맛〉, 〈촬영의 맛〉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학기 초 학생들이 많이 산만했었는데 다 견뎌주시고 넘어가주시고 저희와 친하게 지내주셔서 즐거웠어요!

Q5. 경기상상캠퍼스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진로체험 수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탐구의 맛〉 수업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이 매 수업마다 재밌거든요. 게임 재밌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때만큼은 다 잊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장영인

소중한학교



‘소중한학교’에 다니는
장영인입니다.
저는 연예인이 하고 싶기도
하고, 대기업 사장이 되고
싶기도 해요.(웃음)

저는 지금 경기상상캠퍼스에 와서 〈탐구의 맛〉, 〈촬영의 맛〉 수업을 듣고 있어요.

Q1.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이 타 진로체험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쌤들이 잘생겼다! (누가?) 〈촬영의 맛〉 보조 선생님이요. 잘 생기셔서 집중이 잘되고 수업이 기대돼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 여태 들었던 중학교 수업과는 달라서 더 기대되고요.

Q2. 프로그램 동안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탐구의 맛〉 수업 때 노래방기계 가져오셔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했던 거요. (어떤 노래 불렀어요?) 〈사랑 참 못됐다〉...그리고 여러 개...(그중에 누가 제일 잘 불렀어요?) 저요! (웃음) 장난이고 김나연이라는 친구요.

Q3.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진 촬영 할 때 쌤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사진 찍을 때가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원래는 매일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잘생긴 쌤들이랑 같이 나가서 풍경사진 찍으니까 즐거워요. 보조 선생님 뿐 아니라, 주강사 선생님도 재밌어서 자꾸 웃게 돼요.

Q4. 경기상상캠퍼스에 와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왔었나요? 처음이에요. 저녁에 모바이크 타고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폐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학교’ 프로그램을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좀 겁났는데 낮에 와보니 대학교 같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재밌는 수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Q5.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친구들이 말 잘 안 듣고, 졸고, 투정부리는데도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다 맞춰주고 해달라는 거 뭐든지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기 노래방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탐구의 맛〉선생님들이 노래방기계도 가져다 주시고, 항상 저희 의견 들어서 보드게임 뭐할지 정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매번 주시고! 감사해요!

Q6. 경기상상캠퍼스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진로체험 수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목공프로그램이랑 벽화그리기요! 투어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여해

서호중학교 1학년 3반



저는 경기도 수원시
서호중학교 1-3반에
재학 중인 박여해입니다.

저는 지금 <목공의 맛> 수업을 듣고 있어요. 1학기 때는 <매듭의 맛> 수업 들었었어요. 인터뷰 사진 찍는 줄 알았으면 체육복 말고 교복입고 올 걸(울상) 목공 수업 할 때 톱밥 날려서 체육복입고 수업하거든요...

Q1. 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목공활동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지난학기에 이 프로그램 했던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었어요. **(어떤 점을?)**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다고. 특히 남자선생님이 재밌다고.

Q2. 들어보니, 어때요?

듣던 대로 남자선생님 너무 재밌고, 여자선생님은 멋있어요!

Q3.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이 타 진로체험수업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직접 뭔가를 만들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Q4.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재밌던 순간이 있다면?

<목공의 맛> 2번째 수업인가? 스트링아트 하는 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색깔을 골랐어요. 우정팀으로 친구들이랑 같은 색을 골랐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매듭의 맛>에서는 시계 만든 걸로 아빠 선물 드려서 의미 있었어요~

Q5.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역시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다른 수업들은 지루한 점이 많은데 여기 선생님들은 다들 재밌게 수업하세요.

Q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보람 있던 적은?
<매듭의 맛>수업할 때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아버지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1학기 <목공의 맛> 때 벤치 만들고 기부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대요.

Q7. 경기상상캠퍼스에 와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왔나요?
'포레포레' 때문에 와봤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공연 구경 했었어요! 저희 반 친구들은 거의 다 왔을 걸요? 돌아다니는데 같은 반 애들 많이 봤어요.

Q8.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쌤들! 항상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주

서호중학교 1학년 4반



저는 권선구에 사는
신우주입니다.
서호중 1-4반이고요.
특수분장사가 꿈이에요!

Q1.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매듭의 맛>이요!

Q2. 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실을 꼬아 만드는 매듭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매듭을 만들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손으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Q3.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이 타 진로체험수업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매듭은 꼬면 튼튼해져서 여러 물건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렇게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 남는 프로그램이라 특별한 거 같아요! 저는 1학기 때 요리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요리 같은 경우는 만들고 먹으면 사라지거든요...(웃음)

Q4.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재밌던 순간이 있다면?

평매듭이라는 기법으로 만든 시계요! 그걸 1학기 때 했던 친구들이 그걸 엄청 자랑해서 기대했는데 기대이상으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 그림 누구 줬요?)** 학원갈 때 시계 차야 돼서 저를 위해....(웃음)

Q5.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방식이랄까요? 어려운 매듭 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차근차근 천천히 할 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그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Q6. 경기상상캠퍼스에 와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왔나요?
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체험하러 갔었어요. 경기상상캠퍼스 둘러보고 '예전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느꼈어요.

Q7.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전체적으로 매듭을 잘 몰랐던 친구들 모두 케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몰랐던 새로운 매듭을 알려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어려운건 풀고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잘 끝낼 수 있었어요!

Q8. 경기상상캠퍼스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진로체험 수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매듭의 맛> 진짜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2학년이 돼서 못하더라도 1학년 후배들도 한 번씩 경험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김규민

서호중학교 1학년 3반



서호중학교 1-3반 1번
김규민입니다.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예요.
현재는 롤(LOL)을 잘해요.

현재 저는〈목공의 맛〉에 참여하고 있어요!

Q1. 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조립이랑 분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걸 나무로 직접 해서 그 느낌을 알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Q2.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이 타 진로체험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Q3. 수업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무래도 매주 하는 습질이 가장 섬세한 작업이라서 다치지 말아야겠다,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중력 키우기에 좋은 수업!

Q4.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첫날 망치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든 망치로 또 어떤 물건을 만들까 기대해서 좋았어요. 만드는 데 2주 걸렸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고요.

Q5.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부르면 먼저 가서 도움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을까 신경을 써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께 굉장히 신뢰가 가요.

Q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보람 있던 적은?
스트링아트를 했는데, 저만 다른 모양 골라서, 기분이 묘했어요. *(어떤 모양 했어요?)* 새 했었어요! 저만 해서 놀랐어요! 완성해서 지금 전시하기 위해 모아놨어요.

Q7.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선생님들이 계속 주의하면서 친구들 도와주고, 친구들이 큰소리나면 다친 줄 알고 걱정해주시고, 집중 흐트러지면 밖에 나가서 놀다 와도 된다고 해주시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자율적으로 소통해주셔서 감사해요!

Q8.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에 원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선생님들이 두 분이서 수업 하시는 게 힘들어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넉넉히 정보를 알려주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요점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재원

서호중학교 1학년 2반



안녕하세요.
저는 서호중학교 1-2반
이재원이고요,
저의 장래희망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저는 지금 〈매듭의 맛〉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1. 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배워 놓으면 집에서 취미로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Q2. 경기상상캠퍼스 수업이 타 진로체험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1학기 때 들었던 〈음식의 맛〉에서는 여러 명에서 한 음식을 만드는데, 〈매듭의 맛〉은 저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점!

Q3. 프로그램 동안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매순간, 시계 만들 때가 유독 재밌었어요.

Q4.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보람 있던 적은?
작품을 시간 안에 완성했을 때. 쿠라히보 디스크 그거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가장 보람 있었어요.

Q5. 한 학기 고생한 강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저희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만나면 꼭 인사해요! 힘내세요! (웃음)

Q6. 경기상상캠퍼스에 원하는 점이나 개설되었으면 하는 진로체험 수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유튜브 만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세요!

#영상콘텐츠

〈촬영의 맛〉 “위시” 정훈희, “투스텝스” 안성현 | 인터뷰 시기: 2019. 10.

결국 어떻게 영상을 찍느냐보다는
무슨 영상을 찍을 건지부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수업의 중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저희는 영상콘텐츠 제작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중한학교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만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촬영 방법, 편집 방법을 답습하기 보다는 기획에 중점을 두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모더레이터의 역할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저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무언가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결과물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목표의 실현 정도는요?) 아직은 반도 채 안 된 거 같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어렵네요. 하하하

사실 영상이란 게 친숙하면서도 꽤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걸 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던 영상과는 많이 다를 거 같았어요. 이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영상 촬영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콘텐츠 중심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영상을 찍느냐보다는 무슨 영상을 찍을 건지부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수업의 중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움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프로그램이 기존에 진행했던 교육 사업들과 다른 점은 일단 수업하기에 상당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커리큘럼부터 교육진행까지. 특히 저는 실내보다는 야외, 팀 수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런 요소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야외수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 곳은 한창 뛰어놀 나이인 학생들에게 최적의 장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아이들이 영상콘텐츠 자체에 관심이 없을 때가 제일 난감하다는 것? 아무래도 학교 연계프로그램이다 보니, 수업을 원치 않는 친구들도 간혹 있기 마련이에요. 말을 안 듣거나 장난치는 등의 수업을 방해하는 건 어떻게든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다면 진행자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소중한_반전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학교 학생들의 매력 포인트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무뚝뚝한, 요즘 말로 ‘흔데레’라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알고 보면 활발하고 끼가 넘친다는 거죠.

애들아, 영상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 함께 배워나갔던 수업이 언젠간 좋은 쓰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마워!



#보드게임

〈탐구의 맛〉“짓거리 연구소” 이재환, 김예원 | 인터뷰 시기: 2019. 10.

#보드게임이

#수업이되다

#보드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드게임 집중 탐구 수업 〈탐구의 맛〉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판 중인 보드게임을 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드게임의 구성 탐구와 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보드게임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보는 수업입니다. 보드게임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통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계 맺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구나무서기

학생들이 처음 2-3주 간의 보드게임 수업을 진행해도 강사와 친근하게 대화하지 못했는데, 저희 팀이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을 소개하고, 규칙보다는 자유롭게 개인별로 체험하게 했더니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희에게 물구나무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체조 선수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여전히 할 수 있는 동작이 많으며 옆 돌기와 다양한 체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날이 기억에 남아요.

#성향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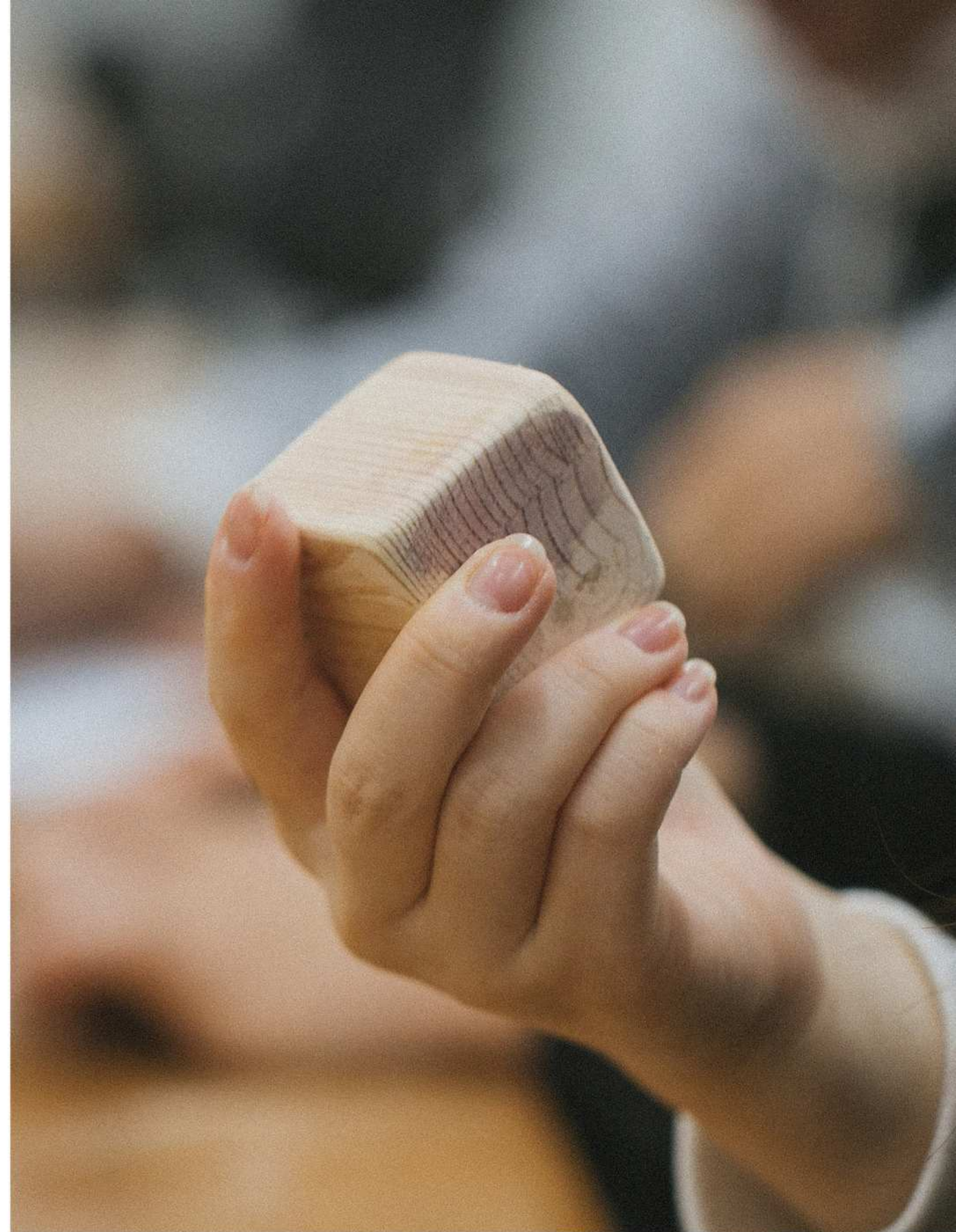
친구들과 수업을 진행하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점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성향 차이에서 왔어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관련 활동과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보드게임 활동이 있어 둘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차도 있긴 하지만 주로 복잡한 규칙의 보드게임이나 노래방기계 등은 여학생들이 더 선호했고 활동적이고, 조립하는 활동의 보드게임 수업은 남학생들이 더 선호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활동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리듬

이번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희의 생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유로운 수업의 형태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규칙을 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주었을 때보다 자유롭게 각자의 리듬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자유롭게 두었을 때 학생들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제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학생들 스스로도 알아내고 연습하며 수업에 더 높은 집중도를 만들 수 있다는 배움을 도리어 제가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찬휘

학생들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똥꼬발랄이랄까. 여학생들이 정말 발랄합니다. 가정용 노래방기계의 구성과 설치방법 수업 때 노래방기계를 보고 수줍어하더니 수업 시간을 꼭 채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나중에는 소찬휘 노래까지 부르며 열심히 노는 모습이 정말 발랄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수줍게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할 땐 좀 귀여운 것 같네요. 친구들! 수업 열심히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예쁘게 성장해서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재밌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호중학교

〈서호중학교〉자유학년제 담당 선생님들 | 인터뷰 시가: 2019. 10.

강사 분들이 오셔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 수업해주시고,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시는 정성까지
보여주셔서 만족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호중학교 자유학년제 담당 교사들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선생님의 소개로 이번년도에 〈목공의 맛〉, 〈매듭의 맛〉을 경기상상캠퍼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는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생각하되, 흥미를 대략 65%정도로 크게 차지하고 이에 맞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매듭의 맛〉은 작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재 선택하였고, 〈목공의 맛〉은 본교 학생들에게 나무와 망치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 및 작품을 만들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죠.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은

타 진로체험은 관람 및 안내가 70%, 체험이 30%라면 경기상상캠퍼스 진로체험은 체험이 70%, 안내가 30%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경험을 제공해줘요. 이와 더불어, 우수하고 전문화된 강사진들 덕분에 체계적이고 노련미가 돋보이는 수업이 가능해요. 특히 강사 한 분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강사 분들이 오셔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 수업해주시고,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시는 정성까지 보여주셔서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게 매우 만족스러워요.

내년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코딩이나 3D프린팅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것들, 업사이클링, 스포츠나 댄스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강사진들에게 꿀팁이 될 만한 서호중 선생님만의 '흥미유발' 노하우는

수업 시작 전 5분 이내의 게임을 진행해요. 대신 오늘 수업과 관련 있는 초성게임(시사,유머 등)과 눈치게임 등으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그리고 수업과 관련되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할 질문을 던지거나,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노하우!

서호중 학생들의 매력 포인트는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 매력인 것 같아요~ 못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선생님을 잘 따르는 편이죠!

2019년 고생한 강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다소 발랄(?)한 학생들과 함께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강사분들의 역량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특히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심성의껏 지도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늘 같이 해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롭고 내실있는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혜학교

〈자혜학교〉조창빈 선생님 | 인터뷰 시기: 2019. 10.



강사진의 장애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두 프로그램 강사님들 모두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혜학교 자유학년제 담당 조창빈입니다. 저희는 경기상상캠퍼스와 연계하여 자유학년제 예술·체육 활동으로 'BNISPOEDU' 강사들이 진행하는 방송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자유학년제 동아리 활동으로 '락희공방' 강사들이 진행하는 공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신체활동 참여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이 아니면 장애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큰 어려움도 있고요. 따라서 재미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스포츠 활동보다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경기상상캠퍼스 방송댄스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방송댄스 수업은 가정에서 tv를 많이 시청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진행되기에 흥미를 가집니다. 또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의 경우 작년에도 방송댄스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 공예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한 계기는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할 때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나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지녀요. 이런 학생들의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성공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락희공방'의 공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우리 학생들은 매주 특정 작품을 완성하는 성공과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직접 가져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부모님께 자랑하는 등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체활동이 부족한 장애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재밌는 뉴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도 개설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진로체험 부분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리스타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바리스타 체험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원을 활용한 숲 해설사, 산림관리사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 직업체험도 생기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진들에게 매우 감사하는 바는

우리 학생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가장 염두하는 점은 바로 강사진들의 장애이해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학교는 경기상상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곳에는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장애 고유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개인별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런 우리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참여한 방송댄스, 공예활동 프로그램 모두 강사진의 장애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두 프로그램 강사님들 모두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어요. 아이들 별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등 다양한 돌발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강사님들도 1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을 접하면서 우리 학생들과의 라포(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리 학생들도 강사님들을 진심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낀 2019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지난 1년 간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참여자 중 설문조사 응답자
총 57명의 학생의 의견과 연계학교 교사 5명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 프로그램 선택 이유



· 참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택한 이유에는 '메이커스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31.5%,
그 다음으로는 '지난 학기 수강한 친구의 추천'이 29.6%를 차지했습니다.

2. 수업 내 만족스러운 항목



· 참여 학생들이 수업 중 가장 만족했던 부분에는 '친구들과의 협력'이 44.4%,
그 다음으로는 '커리큘럼'이 25.9%를 차지했습니다.

· 교사 응답자의 수업 중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강사진'이 6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커리큘럼', '적성 및 재능 발견', '친구들과의 협력'이
각각 12.5%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3. 만족도 조사

구분	응답 사항						5점 척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했다.	0.0 (0) 0	0.0 (0) 0	7.1 (4) 12	23.2 (13) 39	69.6 (39) 195	100.0 (56) 259	280 (259) 92.50%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 이 대상 연령에 적합했다.	0.0 (0) 0	0.0 (0) 0	7.1 (4) 12	25.0 (14) 56	67.9 (38) 190	100.0 (56) 258	280 (258) 92.14%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적당했다.	0.0 (0) 0	0.0 (0) 0	12.5 (7) 21	17.9 (10) 40	69.6 (39) 195	100.0 (56) 256	280 (256) 91.43%
본 프로그램 진행 방 식이 적절하였다.	0.0 (0) 0	0.0 (0) 0	5.4 (3) 9	21.4 (12) 48	73.2 (41) 205	100.0 (56) 262	280 (262) 93.57%

·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9.6%가 매우 그렇다, 23.2%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프로그램 대상 연령 적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7.9%가 매우 그렇다, 25.0%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시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9.6%가 매우 그렇다, 17.9%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방식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3.2%가 매우 그렇다, 21.4%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하 <표>의 4 문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점수의 백분율 평균 만족도는 92.41% 로 나타났습니다.

· 교사 응답자의 경우 같은 4개의 항목에서 모두 100%의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4. 교사들의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있다	5	100.0%	100.0%
유효	없다	0	0.0%	0.0%	100.0%
	합계	5	100.0%	100.0%	

· 교사 응답자의 100.0%가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의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기타 의견

· 매우 훌륭한 강사진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세심한 수업내용 모두 만족합니다.

· 뉴 스포츠 활동, 형질을 이용한 업사이클 활동이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 위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도에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훌륭한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강사진이 바뀌더라도 교육워크숍 등을 진행해 강사진들의 특수교육기관 학생, 중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야외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뉴 스포츠 수업 등 올해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진로체험 메이커스 교육의 분야를 넓힐 예정입니다.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디제잉의 맛>수업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목공의 맛>수업

양손학교

5개 프로그램, 47회, 703명 | 2019년 12월 기준

양손 가득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을 다시 나누는

〈양손학교〉는 교육을 통해 ‘양손 가득 배움을 얻고’, 사회변화 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그 배움을 다시 나누는’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의 성인 대상 교육특화 신규 사업입니다.

〈양손학교〉는 ‘모두를 위한’ 즉,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수동적 교육을 지양하고자,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는 교육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양손학교〉의 첫 번째 제시어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올해 공모에는 총 22개의 단체가 지원했고, 다음의 5개 단체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투스텝스]는 미래의 주거형태를 연구하고 직접 3D 프린트로 구현해보는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는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한 이론 및 공예교육, [예술작업실 도란]은 미래 환경을 위해 버려지는 물건을 업사이클링하여 예술키트로 제작하는 교육, [소울크로싱]은 작품 속 미래상들을 분석하고 각자가 예측한 미래를 초단편 SF소설로 써보는 창작교육, [꿈꿈스타일]은 도시재생을 위한 타일공예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이수한 후, 각각의 단체와 교육생들이 올 해 처음으로 진행한 사회변화 프로젝트는 〈양손학교〉 공동 결과전시회였습니다. ‘사회변화’라는 거창한 목표의 달성은 개개인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신규 교육사업인 만큼 〈양손학교〉에 대해 ‘잘’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준비한 결과전시는 11월 23일(토)부터 3주간 이어졌습니다. [소울크로싱] 교육생 분들이 직접 집필한 초단편소설의 낭독으로 시작한 〈양손학교〉 오프닝에는 170여명에 달하는 관람객 분들이 찾아주었고, 결과전시와 더불어 각 교육 단체가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올해 〈양손학교〉를 진행하며 교육 단체와 교육생 분들이 주신 정성 어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손학교〉 1기 교육생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년도 교육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사회의 도래를 위한 크고 작은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 끝에 2020년 또 다른 모습으로 반갑게 찾아올 두 번째 〈양손학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양손학교〉는 교육을 통해
‘양손 가득 배움을 얻고’,
사회변화 프로젝트로 ‘그 배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For All

모두를 위한

2019년 함께한 양손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양손학교 참여 단체 및 프로그램 소개

1. 투스텝스

투스텝스는 “누구나 3D프린터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자”를 목표로, 다양한 연령층 대상의 3D프린터 교육을 제공하고, 자체 제작한 3D프린터의 판매 및 대여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 단체

프로그램 소개

#3D프린터 #미래주거공간 #3D프린팅 전시회

교육강사: 하석호, 이은주

- 8.14 3D프린터와 미래 산업, 미래 주거공간의 변화
(3D 프린터 작동 및 출력원리 이해)
- 8.17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활용한 3D 프린팅 실습
- 8.21 ‘스케치업’을 활용한 3D모델링_툴 사용법 이해
- 8.24 다양한 형태의 집(구조물)을 조립식 구조물로 표현하기
- 8.28 자유디자인 작품 계획서 작성, 현대사회의 주거 공간을 조사하고 자유 디자인하기
- 8.31 완성된 도면을 참고하여 3D모델링 진행
- 9.4 완성된 도면을 참고하여 3D모델링 진행,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완성
- 9.7 3D프린팅 진행, 필요한 추가 출력물 출력 진행
- 9.18 3D프린팅 진행, 필요한 추가 출력물 출력 진행
- 9.21 후가공 및 작품완성, 자신만의 주거공간 소개서 작성하기

2.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는 2012년부터 적정기술, 가죽공예, 3D펜 등 100종 이상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 단체

프로그램 소개

#3D펜 #목공 #가죽공예

교육강사: 김윤태, 연광흠, 조영철

- 8.2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 8.28 자원과 폐기물 (클러치백 만들기)
- 9.4 자원순환사회의 이해 (클러치백 만들기)
- 9.18 분리배출의 이해 (가죽 장지갑 만들기)
- 9.25 아름다운 나눔 적정기술 (우드스피커 만들기)
- 10.2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우드버닝을 활용한 마을 쉼당 활동)
- 10.9 미래에너지교육의 이론과 실제 (3D펜으로 안내판 만들기)
- 10.16 올바른 먹거리 (친환경 숟가락 만들기)
- 10.23 환경호르몬의 역습 (친환경 뒤집개 만들기)
- 10.30 지속가능한 경기상상캠퍼스 만들기



3. 예술작업실 도란

예술작업실 도란은 디자인, 회화, 공예 등 시각 예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단체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예술 경험과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단체

프로그램 소개

#예술키트 #알쓸신잡 #업사이클
교육강사: 김영랑, 김지현, 광희정

- 8.22 생활 속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면지를 이용한 손바느질 노트 만들기
- 8.29 고쳐 쓰는 도자기 '그릇 수선'
- 9.5 구멍난 양말의 변신! 양말목 소품 만들기
- 9.19 알쓸신잡 옷걸이 '생활 꿀템' 만들기
- 9.26 택배 박스로 캠핑용 등받이 의자 만들기(재단)
- 10.10 택배 박스로 캠핑용 등받이 의자 만들기(조립,장식)
- 10.17 개인별 예술키트 아이디어 공유 및 기획하기
- 10.24 개인별 예술키트 구성품 샘플링 작업하기
- 10.31 개인별 예술 키트 디자인 및 설명서 제작하기
- 11.7 예술키트 자체 품평회를 통해 함께 보기

4. 소울크로싱

소울크로싱은 동화, SF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경험한 문화기획 스토리 창작 전문 단체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 및 비전을 소개하고 스토리텔링 창작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생 스스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단체

프로그램 소개

#SF콘텐츠 #초단편소설 #미래상상자판기
교육강사: 권지연, 임동일

- 8.27 초단편 콘텐츠의 미래 (프로그램 개요 및 소개, 사회변화 프로젝트 목표 제시)
- 9.3 Sci-Fi와 판타지 (Sci-Fi 정의, 역사, 소재 등 SF장르 소개)
- 9.10 인공지능과 휴머니즘 (인간과 AI, 생존과 진화의 갈림길)
- 9.17 미래상상 (디스토피아 세계, SF콘텐츠로 바라본 미래사회 생존전략 모색)
- 9.24 이미지 상상, 다른 영역에서 보기 (제시된 주제와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하기)
- 10.1 캐릭터, 세계관 설정 및 묘사, 플롯 (자신의 이야기 열 개 쓰기)
- 10.8 스토리텔링의 원리 (서사의 발생과 수용, 표상순환, 표상 재기술, 모티프 형식)
- 10.15 스토리텔링의 구조 (영웅신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 10.22 시나리오 작법 (시나리오 기획 및 구조)
- 10.29 합평 (교육생이 집필한 초단편SF소설 합평)

5. 꼼꼼스타일

꼼꼼스타일은 2018년부터 타일을 소재로 제품 제작, 판매, 시공은 물론 셀프 인테리어와 공예 수업을 진행하여 일상 속 매일 접하면서도 관련된 실무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타일'을 보다 친근하게 대중에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교육 단체

프로그램 소개

#타일셀프인테리어 #타일아트 #도시재생
교육강사: 이흥규, 김우진

- 9.27 타일의 역사, 종류, 활용 사례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타일소품 만들기
- 10.4 수강생이 가져온 재료를 타일로 UP시키기
- 10.11 타일 시공을 위한 재료, 도구 알아보고 타일 붙이기
- 10.18 내 물건에 타일 줄눈 넣기
- 10.25 상상캠퍼스 함께 둘러보고 정보공유 및 이슈찾기
- 11.1 상상캠퍼스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벽면타일 시공실습교육
- 11.8 공공 타일예술 작품 작업 마무리하기, 바닥타일 시공실습교육

투스텝스

인터뷰 시기: 2019. 10.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의 가격을 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세대 간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어요.

[투스텝스]는

3D 프린터를 만들고, 가르치고, 판매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양손학교〉에서는 '손바닥 하우스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사회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
생들이 만든 각자가 꿈꾸는 미래의 주거공간 작품을 전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 각자의 고민과 가치관이 담긴 '미래주거공간'을 그
리고 이를 3D 프린터로 제작해보는 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양손학교〉 프로그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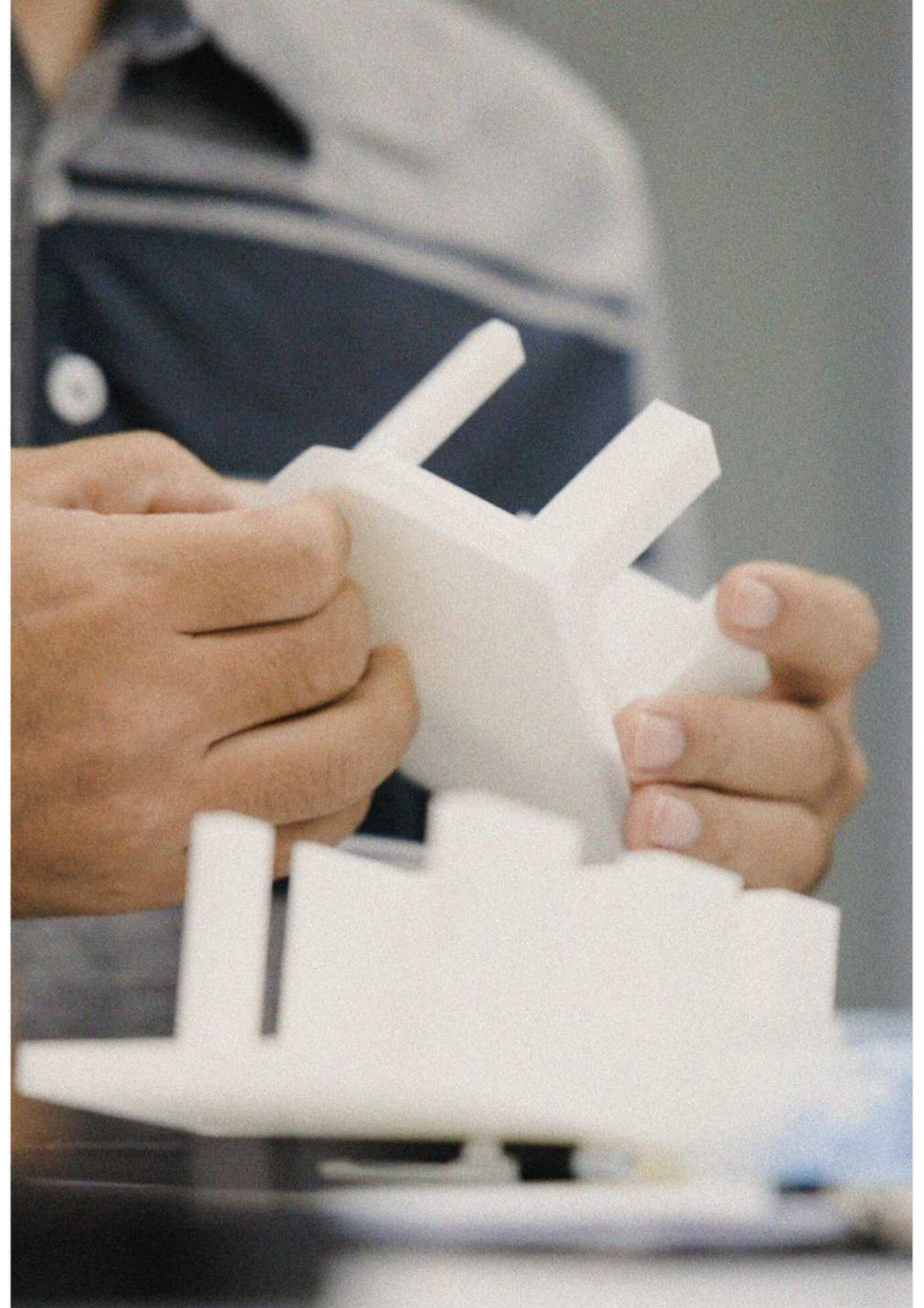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연령층이 달랐습니다.
청년, 기성세대, 주부 등 다양한 성인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그런지 참여하고자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었으며, 교육생 간
발산되는 시너지가 좋았습니다. 또한 직접 시민사회로 찾
아가는 형태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 중

과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방과 공간을 촬영하는 과제였어
요. 과제를 확인하는데 연령대별로 공간 구성이 다른 것이
참 재밌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본인이 살고 싶은 집
의 가격을 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세대 간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
미로웠어요.

보다 나은 〈양손학교〉사업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
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
램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인터뷰 시기: 2019. 10.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환경생태교육, 기타 사회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환경생태교육, 기타 사회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공예를 통한 미래 지향적 마을 만들기’

이번 <양손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공예를 통한 미래 지향적 마을 만들기’는 “3D 펜·목공·가죽 공예”와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연계하여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 공예’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안산 등 수도권 일대 지역 주민과 학생 대상 무료 공예 체험활동 제공했어요.

공예라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게 저희가 프로젝트 구성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둔 목표이며, 목표

대비 150% 실천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상상캠퍼스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었으며, 특히 공동 결과전시회에서는 교육생이 직접 강사가 되어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이 수업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활력소로 작용한 점이 기억에 남네요. 아이들 동반하는 수강생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공예품 제작 수업을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서만 강좌를 운영하여 목공의 경우 축소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예술작업실 도란

인터뷰 시기: 2019. 10.

매주 쌓이는 택배박스, 일회용품,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으려면, 교육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작업실 도란]은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손학교>에서 일상의 재료 또는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을 활용해 교육생들이 각자의 업사이클링 키트를 만
드는 프로그램 '다시 쓰는 예술키트'를 진행했습니다. 관람
객들과 교육생이 만나 교육생들이 만든 '다시 쓰는 예술키
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상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을 갖길 바랍니다. 매주 쌓이는 택배박스, 일회용품, 버려
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으려면, 교육생들
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올해 '다시 쓰는 예술키트' 프로
그램의 교육생들은 100%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사이클
에 대한 생각과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수업에 참가하여, 강
사가 교육생들에게 주는 영향보다 교육생 간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나타나는 시너지가 더 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예적인 요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교육생
스스로의 기획과 고민을 담을 수 있는 게 다른 프로그램과
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또한 교육생 개인의 관심
사와 주제가 다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
보는 등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도 분명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에 교육생 스스로의 기획과 고민을 담는 것"

프로그램 진행하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반대로 말
하면 단순한 공예 활동만을 위해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면, 본 교육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짧지 않은 교육 회차에도 매주 나와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눠준 교육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요.

수업을 하다 보니,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체로 본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기존에 경기상상캠퍼스를 자주 찾아
주신 분들이었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방
법으로 홍보가 된다면, 교육생의 수도 늘어날 수 있지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각자의 키트를 구성하는 회차에
서 교육을 준비하며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
서 포기하면 어떡하지?' '단순한 기능 중심의 키트가 되면
어떡하지?' 등등의 걱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육생들은 이
미 어떠한 키트를 하고 싶은지 구상을 하였고, 그에 대한 샘플
작업까지 해 온 열정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한 교육
생은 비닐을 잘라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안(Yarn)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비닐과 비닐을 연결하는 게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던 다른 교육
생이 티셔츠를 잘라 실을 만드는 방법을 응용해보면 어떠
냐고 의견을 줬고, 함께 작업하며 문제를 해결한 날을 잊을
수 없네요.

[예술작업실 도란]이 생각하는<양손학교>는 [시작이다]

본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씩 변화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소울크로싱

인터뷰 시기: 2019. 10.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펼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울크로싱]은 문화기획, 스토리 창작팀입니다.

영혼의 교차점이라는 뜻으로, '영혼'은 창작물을 상징하고, '교차점'은 교류와 소통을 의미합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잖아요. 창작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창작, 문화예술교육과 강연, 문화기획 등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펼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손학교〉에서 진행한 'SF콘텐츠로 바라본 미래'는

초단편 SF소설을 창작하는 수업으로 SF소설, 영상 등 대중적인 콘텐츠에 담긴 사고실험과 메시지를 문해하여 미래와 휴머니즘을 탐구하고, 초단편 SF소설을 창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사회변화 프로젝트는 '미래상상자판기'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의 결과물은 공개되거나 사업화되기가 어려워서 교육생의 창작의지와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인 창작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사회변화 프로젝트로 교육생의 결과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미래상상자판기'를 제작하여 일반인(독자)간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창작 활동은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생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좋은 질문"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의 창작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생의 창작 활동을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하고,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공

감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았고, '미래상상자판기'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 결과전시회

결과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울크로싱은 '초단편 SF 소설 작품집'과 '미래상상 자판기'를 제작했는데, 작품집의 경우 각각의 작품을 검토하고 보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미래상상 자판기'는 기성 제품이 아니므로 여러 제작 프로세스를 총괄 진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관람객이 '미래상상 자판기'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육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변화 프로젝트'가 있는 열린 교육이라는 것에 〈양손학교〉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SF콘텐츠로 바라본 미래'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창작을 꿈꾸는 개인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여타의 교육프로그램과 다른 점이자 〈양손학교〉만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손학교〉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처음 시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소울크로싱]이 생각하는 〈양손학교〉는 [성장]이다.

글을 쓰는 여정은 다른 모든 창작과정처럼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자신과의 사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열정과 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때,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손학교〉는 작은 개인의 성장이 커다란 사회 변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스타일

인터뷰 시기: 2019. 10.

미래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고 준비하며 교육생
각자가 생활 기능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꼼꼼스타일]이라는 단체로

2018년 5월 창업 이래 타일 제품 제작, 판매, 시공 뿐 아니라 타일셀프 인테리어와 타일공예 수업을 통해 교육생들을 만나왔습니다. 타일을 좋아하지만 다루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져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께, '타일'이라는 소재와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싶어, 일상의 소품에 타일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 해 <양손학교>에서 했던 수업은

'타일로 그리는 미래 공간'인데, 나만의 패턴 및 그림, 타일 포그래피로 디자인 후, 타일시공기법을 적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보면서 내 주변을 관찰하고 타일을 활용한 미래 생활공간을 구체화하는 수업입니다. 또한, '우리 지금 여기 변화 프로젝트'는 7회차 교육을 통해 도출된 주변 공간 변화에 대한 (예:상상캠퍼스 일원) 아이디어와 습득한 타일 기술을 바탕으로, 내 주변 공간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고 이를 직접 해당 공간에 설치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의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각자가 속한 환경을 애정 어린 시선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통계를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교육생 각자가 생활 기능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교육생들과 '타일'이라는 소재와의 거리를 좁히며 도시재생과 셀프 타일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모집 인원 19명 중에 17명이 꾸준히 수업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강생 중에 셀프인테리어 시작하기 위해

알려드린 타일 판매매장까지 방문한 수강생, 인터넷에서 모자이크 타일을 구매해서 테이블을 직접 만들던 수강생, 서점에서 타일 아트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저에게도 소개해준 수강생 등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던 교육생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보다 나은 <양손학교>사업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회변화 프로젝트로 경기상상캠퍼스 시설이나 외부 공간 전체를 시공해보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수업 일정이나 장소를 유동적으로 가지면서 판매장 방문 등 외부 수업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 의견으로도 나온 내용인데, 일회성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수업보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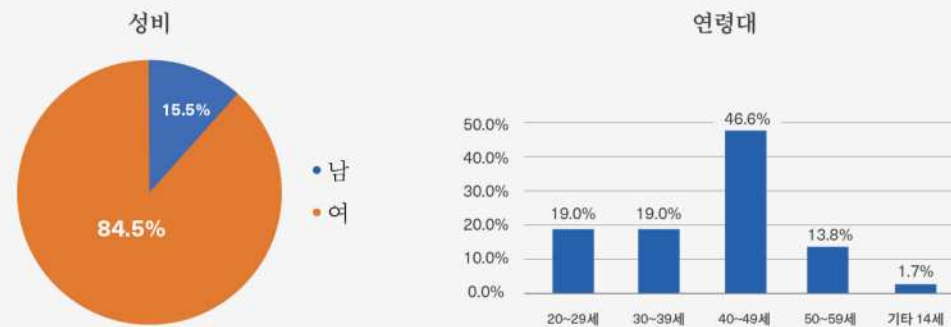
[꼼꼼스타일]이 생각하는 <양손학교>는 [성인들의 놀이터]이다. 삶을 살아갈 때 성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나누며 발산하는 장소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손학교>는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하러 참여했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 같아 '성인들의 놀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2019 양손학교

이번년도 <양손학교> 참여자 중 설문조사 응답자
총 58명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 참여자 성비 및 연령대



· 응답자의 남녀비율은 각각 15.5%, 84.5%로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46.6%로 가장 높았으나, 20~39세 비율도 38%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 프로그램 접한 경위



· 응답자의 절반이 기존에 경기상상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전체 55.2%가 상상캠퍼스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접했으며, 특히 운영 단체들이 직접 게시한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 참여한 응답자는 20.7%로 나타났습니다.

3. 만족도 조사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 ‘교육 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89.7%가 **매우 그렇다**, 10.3%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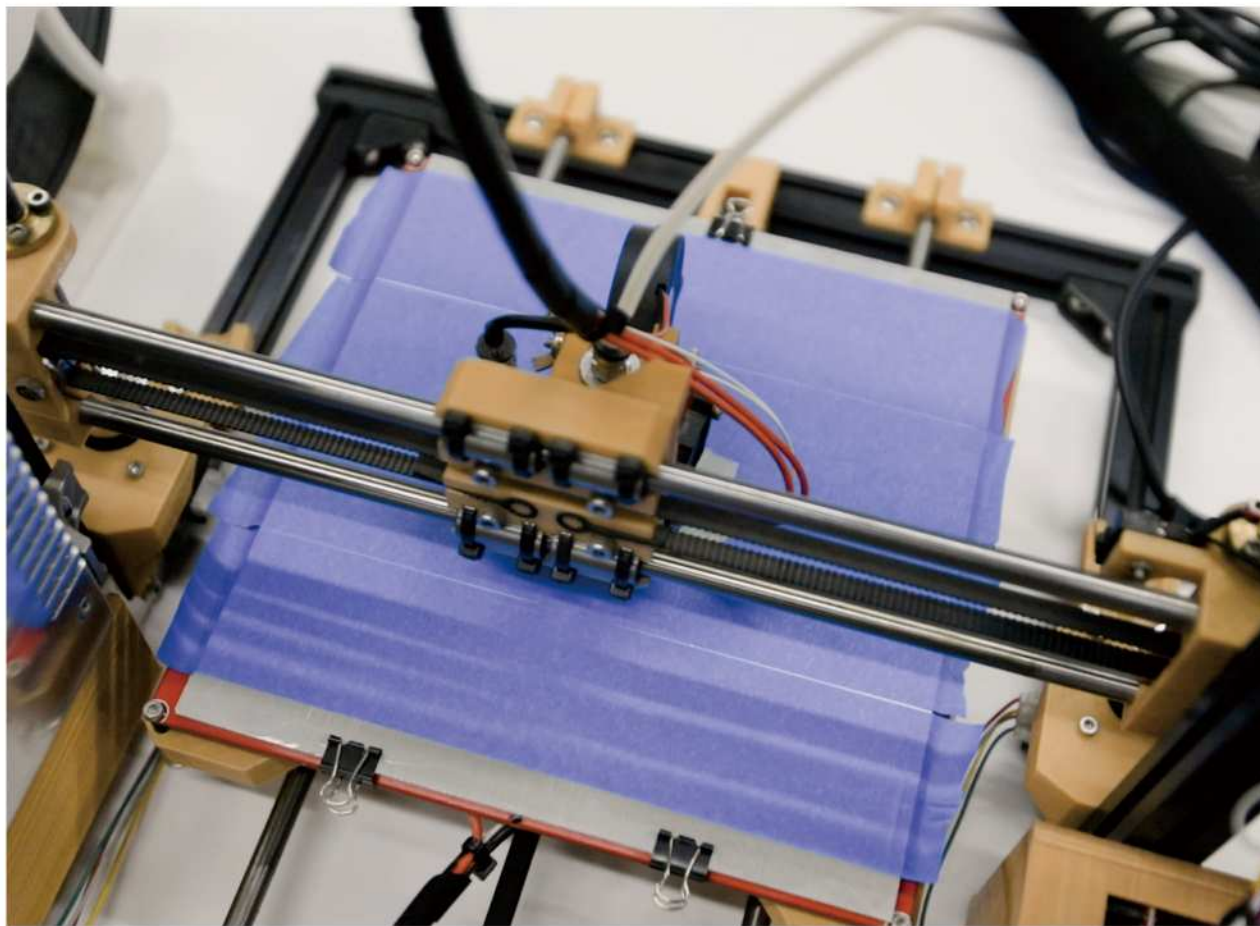
· ‘교육프로그램 과정 내 교육생 의견 반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87.9%가 **매우 그렇다**, 12.1%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전반적 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1.4%가 **매우 그렇다**, 8.6%가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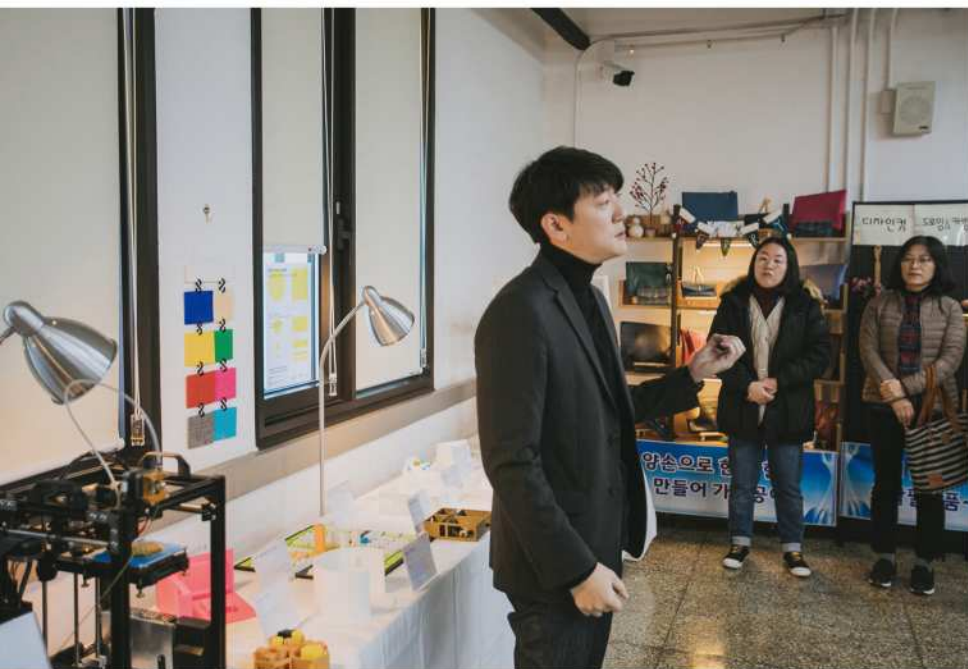
3. 기타 의견

- 다른 기술처럼 초급, 중급 과정(심화과정) 나눠서 진행하거나 좀 큰 작업(또는 벽작업) 하고싶은 사람들도 있을 듯함.
- 작업과정을 금방 잊어서 SNS나 동영상 활용해 복습할 수 있으면 집에 가서도 재작업에 유용할 것 같음.
- 오전수업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여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음. 그 외에는 정말 알찬 수업.
- 이번에 공예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바닥이나 벽 시공, 화장실 시공 등을 현장체험해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음. 타일 공방이나 타일 작업 잘 되어 있는 곳 현장 답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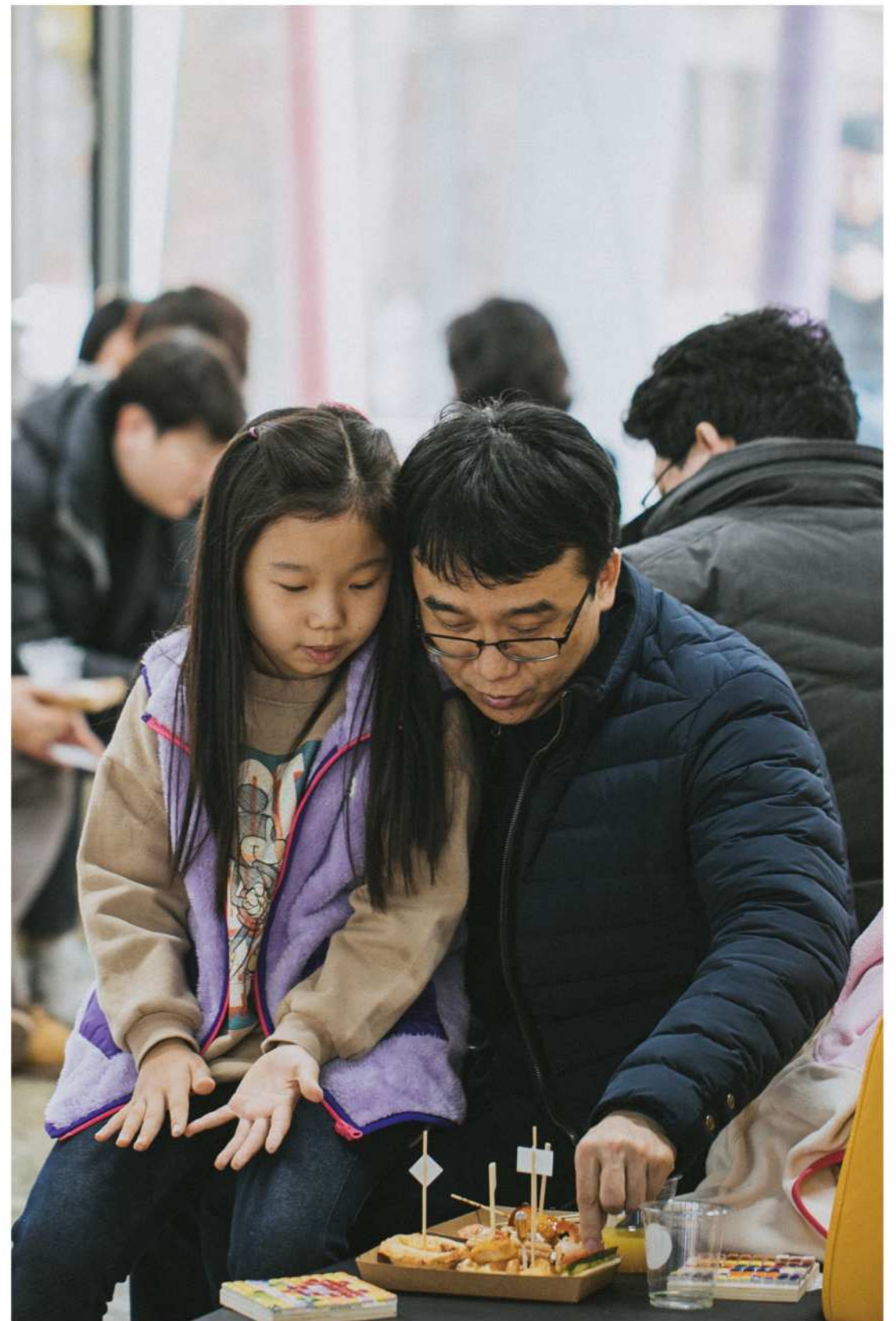
> 이와 같이 1) 교육 시간대의 다양화 2)교육 과정의 심화 및 다양화 3) 현장체험 및 프로젝트의 확장 4) SNS 활용을 통한 보충교육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2020년 <양손학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여러분의 즐겁고 유익한 배움에 보다 기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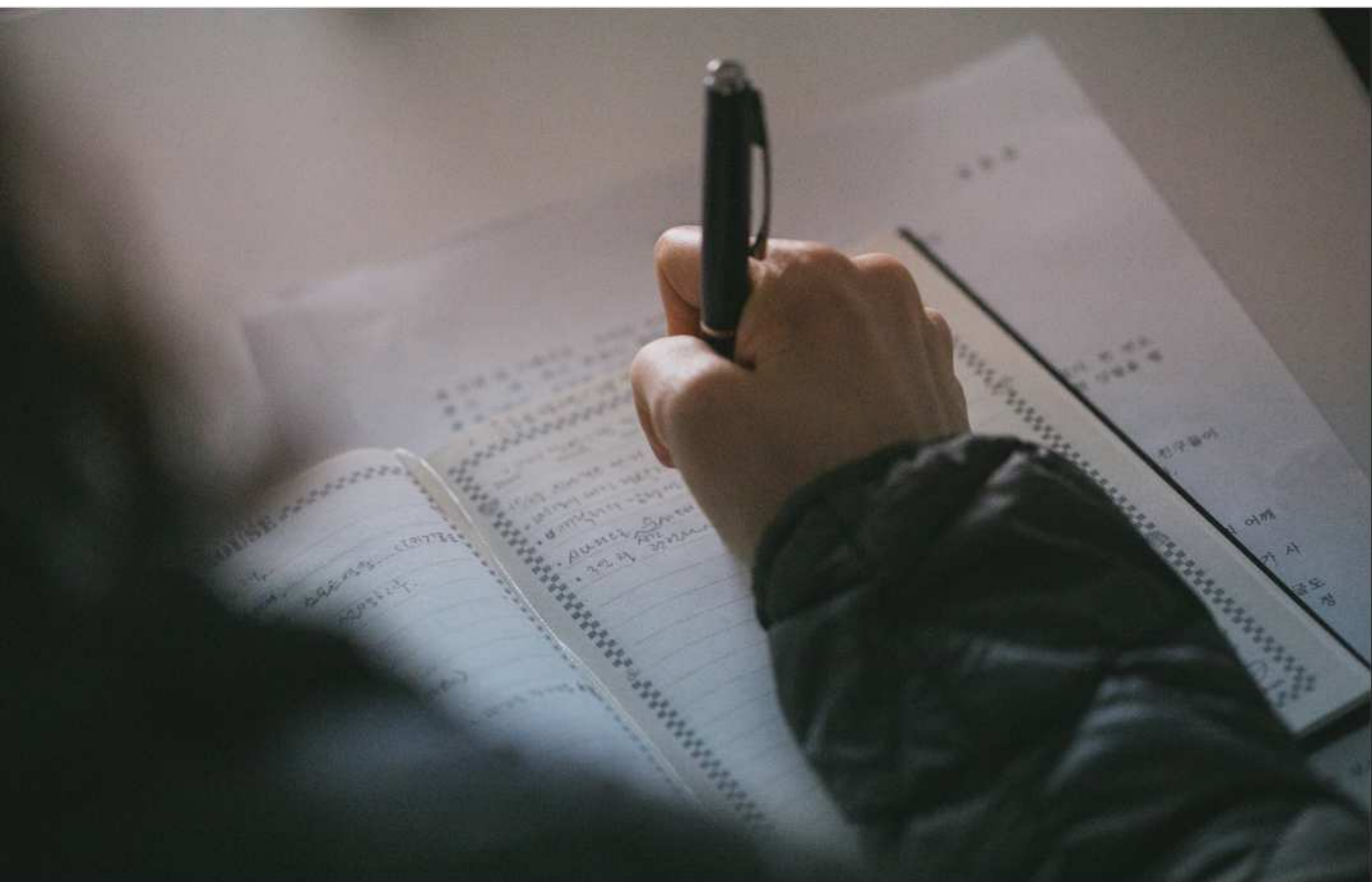
〈양손학교〉 결과전시회



〈양손학교〉 결과전시회



〈양손학교〉 결과전시회



〈양손학교〉 'SF콘텐츠로 바라본 미래' 수업



〈양손학교〉 'SF콘텐츠로 바라본 미래' 수업



One and Only

여기에만 있는

경기상상캠퍼스만의
문화감수성 향유 공간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의 세 가지 비전 중 '여기에만 있는' 교육 비전에는 대중의 창의력과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실험을 장려하는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며 배우는 <교육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경기상상캠퍼스만의 공간에 초대합니다.

①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

체험 투어의 형태로 모든 도민 분들께 예술 작품이라는 '비일상적 독립공간에서의 사색'을 통한 창조적 자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②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며 깨달음을 얻는 '소크라테스 산파술'을 지향하는 쉽 배움의 장입니다.

1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

91팀, 263명 | 2019년 12월 기준

창조적 사색을 위한

자기만의 공간

2018년 겨울, 경기상상캠퍼스에는 새의 동지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하우스 형태의 공공예술 작품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한석현 작가의 상상력과 이의 구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창작자들의 협업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영국인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동명 에세이에서 착안한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은 체험투어를 통해 작품을 경험하는 모든 도민 분들께 '비일상적 독립공간에서의 사색'을 통해 골똘히 생각하고 창작하는 소중한 자기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본 작품의 최초 이용자는 만화가 기안84 작가로, 작품 안에서의 사색을 통해 만화가를 꿈꾸던 20대 시절의 고민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경기상상캠퍼스의 과거와 현재 등을 담은 자전적 성격이 강한 경기상상캠퍼스 소개 웹툰을 그렸습니다. 기안84 작가가 그렸던 것처럼,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이 선사하는 창조적 영감을 나누고자 교육1964의 개관일인 7월 20일(토)부터는 도민 대상의 체험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체험투어의 개시를 알리고,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 작품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하고자 가진 '소소한 오프닝'에는 원작자인 한석현 작가는 물론, 150명이 넘는 도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작가의 작품 해설과 미니 체험투어로 구성된 오프닝 행사는 굿은 날씨에도 정성껏 설명에 귀 기울여주고 투어를 즐기던 도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7월 20일(토)부터 11월 30일(토)까지 5개월 간 최대 주 10회 진행된 체험투어에는 총 91팀, 263명이 투어에 참여하여 가족과 친구 혹은 홀로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에서의 특별하고도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으며, 12월부터 체험투어 동절기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봄, 보다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 체험투어에 많은 기대 바랍니다.





한석현 Han Seok Hyun

한석현 작가는 현대미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식물공장에 관한 관심을 주제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식량과 경관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면서 고안되었던 수많은 방법들과 현대에 이르러 사물의 표준으로 불려지는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유기체가 표준화되면서 겪게 되는 현상들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베를린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베타니엔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베를린에 거주하며 세계 유수의 나라를 무대로 활발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한석현 작가는 2018년 12월 경기상상캠퍼스〈숲속 동자: 자기만의 방〉, 2018년 6월 미국 Idaho Botanical Garden에서의〈Reverse-Rebirth project〉, 9월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Alterling Home' 전시에서의 현대 인공지능원 작업 등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2019년 5월 베를린 식물원 Berlin Botanische Garten과 협업하여 과거 동-서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있던 쿨투어포럼의 성 마케우스 교회 앞 광장에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을 형상화 한 예술정원〈Das Dritte Land: 제 3의 자연〉을 설치했다.

완성된〈Das Dritte Land 제 3의 자연〉정원에서는 한국 오페라 가수 조수미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퍼포먼스 예술이 펼쳐지고 있으며, 성 마케우스 교회에서는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정관 스님의 '화합의 만찬'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① Reverse-Rebirth-project Antlers (2015)
Dufftown, Scotland
다시, 나무 프로젝트: 뿔
더프타운, 스코틀랜드



② Reverse-Rebirth-project (2018)
Idaho Botanical Garden, the USA
다시, 나무 프로젝트
아이다호 식물원, 미국



③ Das Dritte Land (2019)
Matthiakirchplatz
Kulturforum, Berlin, Germany
제 3의 자연
마테우스교회 광장
쿨투어포럼, 베를린, 독일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에 더하는 글

한석현

가능한 많은 창작자들이 이 공간에 머물면서 잠시라도 일상의 번잡스러움을 피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나무 위의 집'이라는 형식은 미술가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낭만적인 요소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늘 쓰는 말로 로망이 있는 형식이다. '동시대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해 온 나는 이 형식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미술가로서 어떠한 예술적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나 감상보다는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창작자가 머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도 중요한 목표였다.

작업을 구상하면서 첫번째 접근은 다양한 동물과 곤충의 집짓기를 조사 했다. 그 중에 '집단 베짜기새(Social weaverbird)'와 '바야 베짜기새(Baya weaverbird)'의 집짓는 형태를 눈여겨봤다. 시각적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을 유도해서 안정감 보다는 모험을 하고 있는 듯한 첫인상을 원했다. 그러면서도 위에 있는 실내공간은 가능한 안정되고 사색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기만의 방' 체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나무 위의 집'의 형식이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몇 가지 대안기술을 적용했다. 잠시 동안 이나마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와 물의 도움 없이도 머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자 했다.

첫째로 작은 태양열 판을 이용하여 밥에 불을 쪄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때로는 개인 스마트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도록 했다. 둘째는 빗물을 모아 저장하고 정수하는 장치를 만들으로써 최소한의 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빗물 저장통과 정수장치는 건물의 구조 안에 감추어 아래에서 정수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낙차를 이용한 중력발전기를 설치해서 놀이적 기능과 축전을 가능케 하도록 설계했다.

창작자가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요소로는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들과 선반에 겹쳐서 집을 수 있는 두 개의 책상을 설치했다.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의 앞뜰은 가능하면 숲 속의 작은 공터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정원처럼 가꾸어지지 않았지만 숲과 연결되어 주변에서 이미 자리한 식물들이 일정 정도 안쪽으로도 자라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를 원했다. 다만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발이 담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야자매트 길을 만들어 두었다. 공터에는 나무의자와 낮은 평상을 두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의 동지 같은 주된 구조 아래에는 덩굴성 식물들을 심어서 구조를 타고 성장하면서 매년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변화를 꿈꾸었다. 등나무, 능소화, 등수국 등을 심었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꽃이 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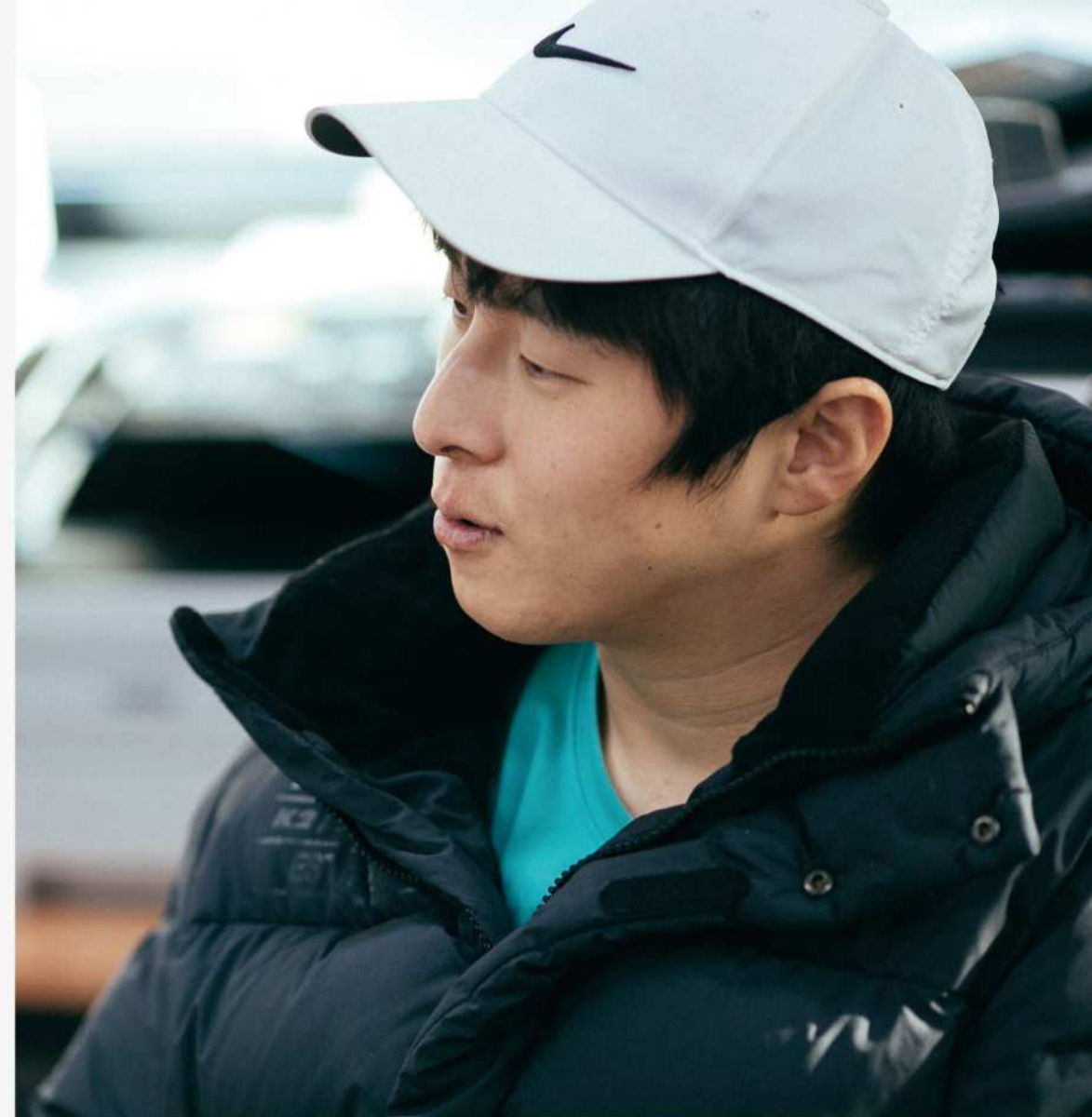


〈숲속 동지: 자기만의 방〉의 터는 다섯 그루의 수원 은사시 나무를 안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다른 후보지역보다는 경기상상캠퍼스의 본부 건물에 가까워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바로 옆의 산책길과 가까우면서도 나무들로 인해 시선이 가려지고 개별적인 공간의 느낌이 드는 위치를 선택했다. 다만 수원 은사시나무는 독특한 품종이고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초여름 씨앗솜털에서 재채기가 유발될 수 있으니 알려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의 이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끝으로 제작자로서의 바람은 가능한 많은 창작자들이 이 공간에 머물면서 잠시라도 일상의 번잡스러움을 피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의 첫 번째 방문객은 누구?

본 작품의 최초 이용자는 만화가 기안84 작가입니다.
작품 내부에서 사색하며, 만화가를 꿈꾸던 20대 시절의 고민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경기상상캠퍼스의 과거와 현재 등을
담은 경기상상캠퍼스 소개 웹툰을 그렸습니다.



〈숲속 등자: 자기만의 방〉의 첫 번째 방문객 기안84의 작품

수원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이곳은...



내 퇴근길
이 있다...



그 당시...
만화가의 꿈은
나를 괴롭혔다...



폭풍과도 같았던
20대의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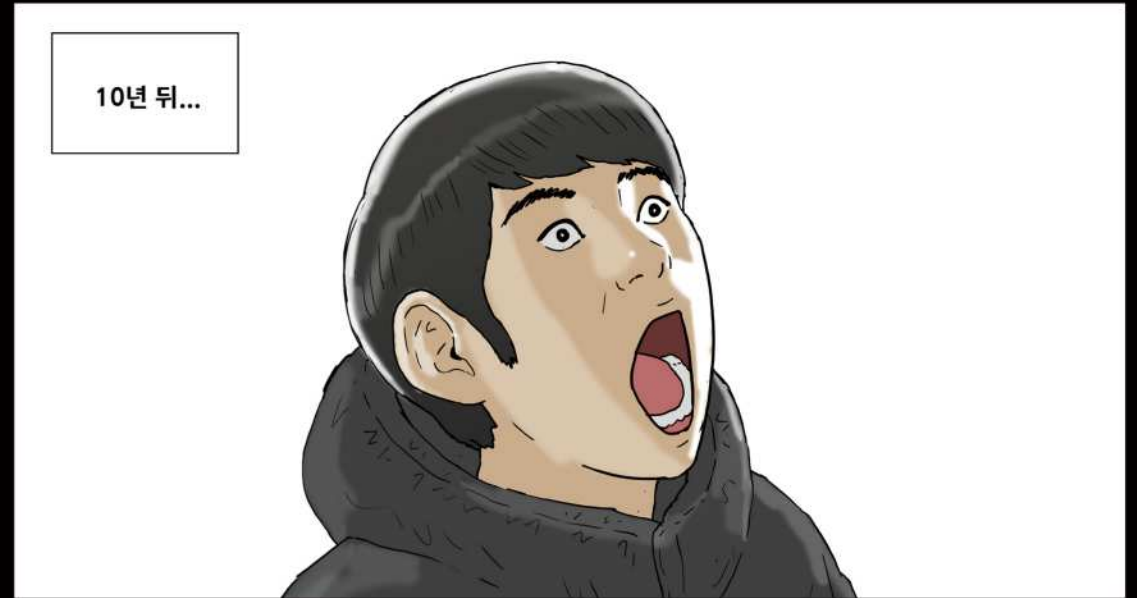
수원 서둔동의
이 퇴근길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10년 뒤...



그렇게 평생 달여있을거
같던 그 숲의 캠퍼스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었다



다시 열린 서둔동의
경기상상캠퍼스...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 체험투어 오픈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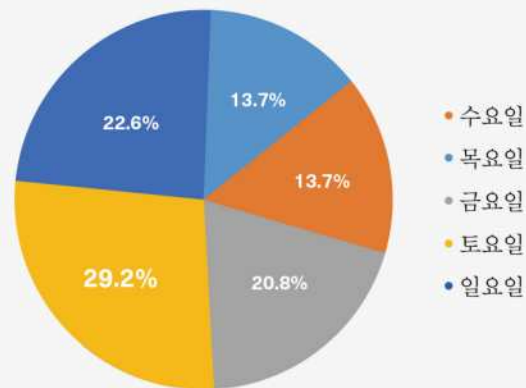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 체험투어 오픈 행사

여러분이 느낀 2019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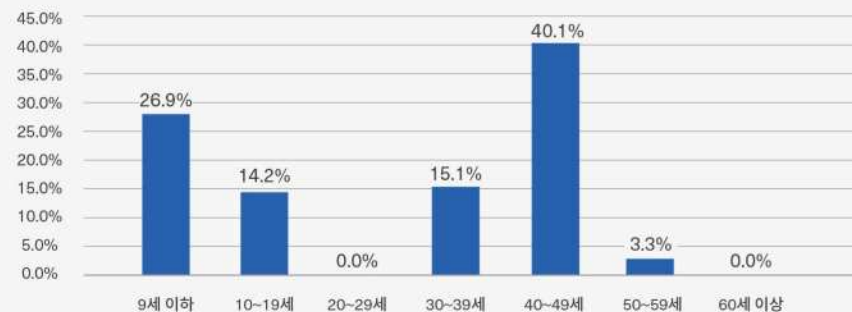
지난 1년 간 <숲속등지: 자기만의 방> 참여자 중 설문조사 응답자
총 212명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 방문 요일



· 응답자의 방문 요일은 토요일 (29.2%)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났습니다.

2. 참여자 연령대



· 응답자의 연령대는 부모와 자녀 방문객이 많은 경기상상캠퍼스의 특성상 40~49세와 9세가 각각 40.1%, 26.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 참여자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3. 만족도 조사 및 재참여 의사



· 응답자 전원이 투어 재참여 의사를 밝혔고,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체험투어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8.8점을 획득했습니다.

4. 기타 의견

· 두 아이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나무 위의 집에 올라 상상력이 현실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숲속등지 내 설치된 의자
폭이 좁고 다소 불편한 감이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자연을 음미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적혀있으면 좋을 듯. 너무 더워서 오래 머물기 힘들었으나, 물, 선풍기,
모기퇴치제 배려가 좋았습니다. 겨울에도 추위 대비가 필요할 듯함.

>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안락의자 마련과 함께 동절기를 대비한 라디에이터를
구비했으며, 보다 원활한 체험투어 접수 및 이용방법 안내를 위해 새로운 예약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부재했던 20대 참여자층의 전폭적인 증대를 위해, 향후 새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

대화의 정원에서 만나요
화려한 표현이 아니어도
의미와 사랑이 깃든
정성스런 우리의 진심을
원 없이 나누도록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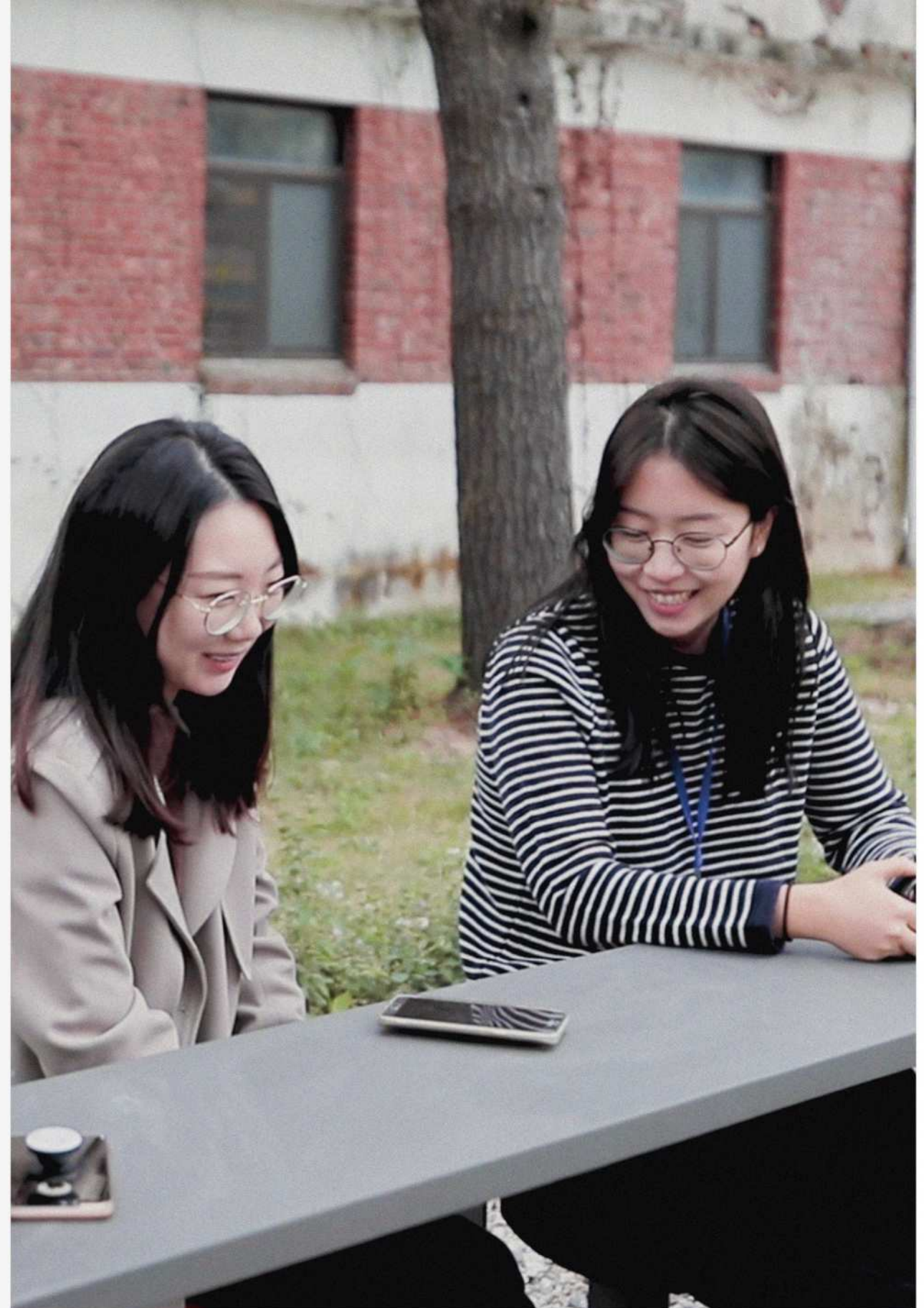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새 단장을 마친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서울대 농업생명대학의 농업교육학관으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리모델링하여 탄생한 교육1964는, 기존 건물의 기능을 고스란히 이어 받아 경기상상캠퍼스의 교육 특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1964라는 명칭은 상상캠퍼스 내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1964”는 건물의 준공년도, “교육”은 공간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1964>의 세 가지 비전 중 “여기에만 있는” 교육을 위해 올해 새로 조성된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은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과 짝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이 체험투어를 통해 홀로 꼼꼼히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면,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은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며 배움을 얻는 ‘소크라테스 산파술’적인 학습의 장입니다.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은 구체적으로 14인용 테이블과 의자, 지붕이 있는 파고라를 갖춘 실외교육 공간과 5개의 테이블, 24개의 의자가 비치된 생산적 대화를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쉽고 배움이 공존하는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은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 작품과 더불어 건물 밖으로 교육공간을 확장해 나아가는 <교육 1964>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향후 보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펼쳐진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은 2019년 9월 21일(토) <교육1964> 개관 64일째 되던 날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당일 진행한 개관 64일 행사에는 재즈 공연을 위한 멋진 개방형 무대로 변모하여,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민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교육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20년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서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대화의 상상

영화 속 명대사를 직접 상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1997)

감독 제임스 L. 브룩스

“칭찬을 시작하리다”

“다녀간 다음 날부터 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_____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제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더 리더: 책 읽어 주는 남자〉(2008)

감독 스티븐 달드리

“당신이 생을 마감하는 날, 당신을 보며 말할 거예요.”

“_____”

〈주토피아〉(2016)

감독 바이론 하워드, 리치 무어

“꼬맹아, 커서 코끼리가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는 코끼리가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 주토피아에서는

_____.”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 소개 영상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 소개 영상



Learning by Playing

놀면서 배우는

경기상상캠퍼스만의
문화감수성 향유 공간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 세 가지 비전 중 '놀면서 배우는' 교육은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웃고 즐기며 배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나 같이 산다>, 모두를 위한 <교육1964>
개관 64일 행사를 함께 즐겨볼까요?

①

나 같이 산다

'요리와 봉사', '캐릭터와 콘텐츠 개발'이 결합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②

<교육1964> 개관 64일 행사

창의력과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특화 공간인
<교육1964>의 개관 64일째가 되던 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의
특별강연, 보컬리스트 유사라의 재즈공연을 통해
<교육1964>와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오픈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1

나 같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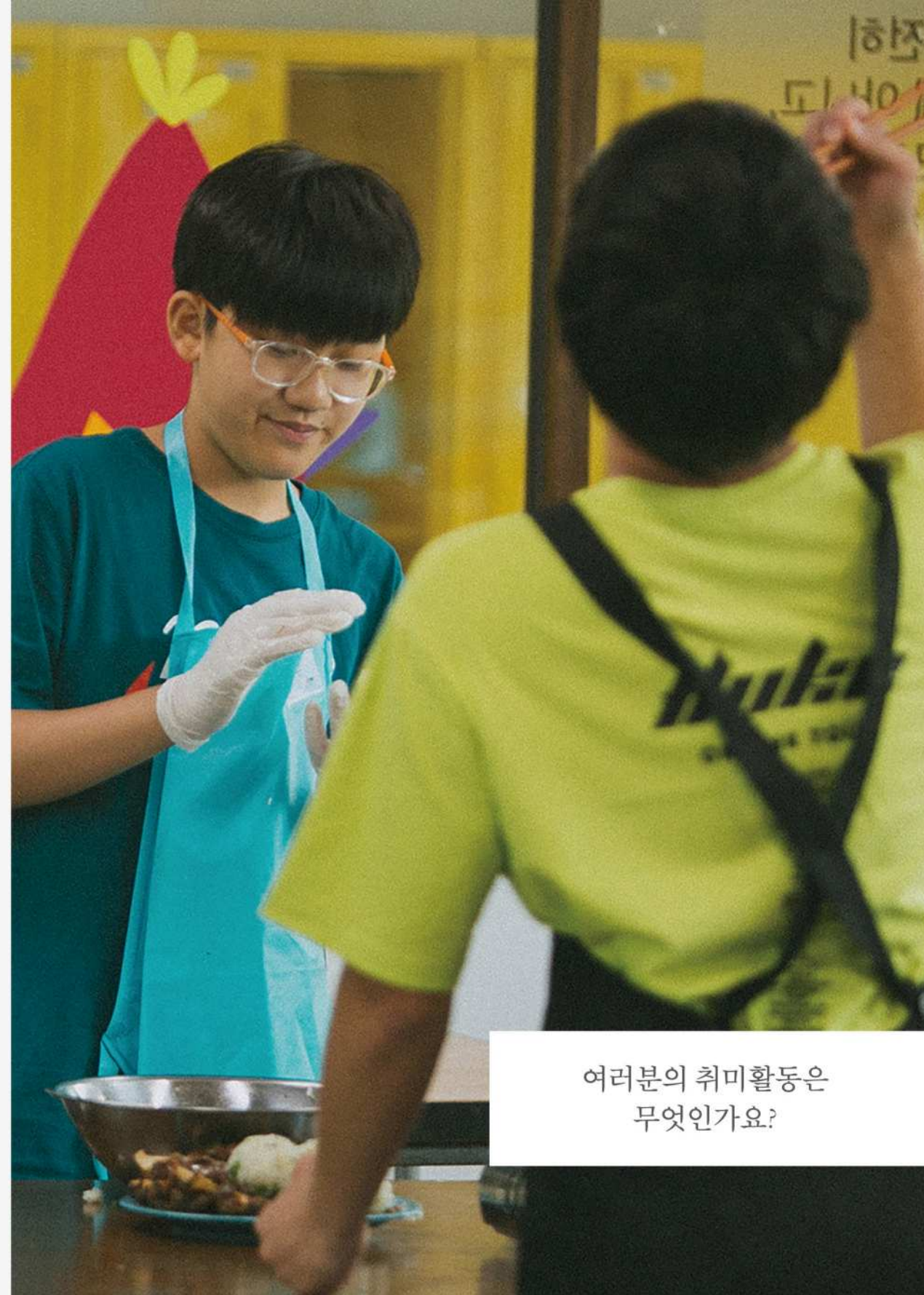
2개 프로그램, 8회, 60명 참여 | 2019년 12월 기준

다 같이, 나답게 즐기는

2019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나 같이 산다>는 <나 같이 요리한다>, <나답게 제작한다>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요리와 봉사', '캐릭터와 콘텐츠 개발'이 결합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나 같이 산다>는 일상 속에서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이지만 간과된 요소가 무엇인지, 학생들의 흥미거리가 생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없을지 구상하여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여름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상상캠퍼스를 찾은 청소년들과 함께 이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활동은
무엇인가요?

나답게 제작한다

“스튜디오알” 장창호, 조주현

“너는 이모티콘 쓰니?
나는 이모티콘 만든다.”

<나답게 제작한다>는 자신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이모티콘 개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나답게 제작한다>에서는 한창 자신의 개성이 생성되고 드러날 시기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문자 중 ‘이모티콘’을 제작함으로써 각자의 창의력과 개성을 맘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릭터 콘텐츠 개발 단체인 ‘스튜디오알’ 장창호, 조주현 강사가 진행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자주 쓰던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추후에 나만의 이모티콘이 하나의 상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진취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수강생 전원에게 태블릿PC가 주어졌으나 본인의 핸드폰 앱으로 과제를 해 올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제작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스스로 제작해볼 정도의 생산적 취미활동이 되도록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답게 제작한다>는 학생들의 흥미거리인 ‘이모티콘’이 취미가 되고, 생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길을 터주는 메이커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여름을 보냈습니다.



나 같이 요리한다

“아리울” 최은주, 최수진

“내 집 밥은 내가 책임진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며 홀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데 모여 직접 집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나 같이 요리한다> 프로그램이 탄생하였습니다. <나 같이 요리한다>는 각종 요리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프로집밥러’ 단체 ‘아리울’의 최은주, 최수진 강사들이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침샘을 자극할 양식, 중식, 한식 등 다양한 종류의 요리 수업이 4주차 동안 진행되었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다 같이 만들어 당일 만든 요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각자의 집에 나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생해 만든 음식을 우리만 즐기엔 너무 아쉽겠죠. 프로그램이 끝난 수강생들은 저마다 역할을 나눠,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거나 인근 ‘벌터마을 경로당’에 직접 전달하는 봉사로 그날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주 간 열심히 경로당에 따뜻한 요리를 전달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반갑게 반겨주는 경로당 어른들. 매주 이들의 만남이 이뤄진 <나 같이 요리한다>는 세대 간 소통의 파스함을 온전히 느끼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짬 내서 배우는 레시피

1. 해물 비빔 우동
2. 쪽갓 비빔밥
3. 마파두부

- 1 - 해물 비빔 우동

주재료		양념 재료	
식재료	수량	식재료	수량
사누끼우동	2마리	간장	2큰 술
		참기름	1 작은 술
새우	8마리	포도씨유	1 큰 술
		설탕	1+½큰 술
양배추	먹고 싶은 만큼!	다진마늘	½큰 술
		식초	1 큰 술
새싹채소	먹고 싶은 만큼!	고추기름	1+½큰 술
		깨소금	2 큰 술

조리순서

- ① 비빔소스를 입맛에 맞게 잘 배합해 섞어둔다.
- ② 우동 면을 삶아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전분기를 빼고 물기를 제거한다.
- ③ 새우는 끓는 물에 데친다.
- ④ 양배추를 넣고 삶는다.
- ⑤ 우동 면과 양배추에 소스를 2~3큰 술 넣고 버무리기(밀간), 해물도 밀간 해주기!
- ⑥ 우동 면에 남은 소스 넣고 깨 뿌리고, 새우 & 해물믹스 넣고 버무린 후 마무리!



- 2 - 쫄갓 비빔밥

주재료		양념 재료	
식재료	수량	식재료	수량
밥	3 공기	소금	1 작은 술
쫄갓	1 주먹	참기름	1 큰 술
		깨소금	2~3 큰 술

조리순서

- ① 쫄갓을 깨끗이 씻은 후 잎과 대를 따로 준비해 둔다.
- ② 끓는 물에 대와 잎을 따로 데쳐 찬물에 식힌 후 각각 물기를 꼭 짰 후 찢어준다.
- ③ 밥, 쫄갓, 소금, 참기름, 통깨를 볼에 넣어 잘 섞어 준다.

TIP! 질긴 부분은 잘라내고, 줄기는 좀 오래 데치고 잘게 다지기!

- 3 - 마파두부

주재료		양념 재료	
식재료	수량	식재료	수량
두부	1모	고추가루	2~3 큰 술
등심돼지고기 간 것	200g	물	1~2 컵
쪽파	조금	두반장	2 큰 술
다진마늘	1큰 술	간장	2 큰 술
파프리카	반 개	후추	약간
양파	반 개	설탕	1 큰 술
		참기름	약간
		맛술	1 큰 술
		물·녹말	
		물	3 큰 술
		녹말	3 큰 술

조리순서

- ① 두부는 1.5cm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채에 받혀 물기를 제거한다.
- ② 쪽파는 0.5cm크기로 썰고, 양파, 파프리카를 다진다.
- ③ 고추기름을 넣고, 쪽파와 마늘, 넣고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다.
- ④ 파프리카를 넣고 간장 1큰 술 넣고 볶다가 물 넣기
- ⑤ 두반장 2큰 술, 설탕 1큰 술, 맛술 1큰 술 넣고 끓인다.
- ⑥ 팔팔 끓으면 두부 넣고 살짝만 저어준다.
- ⑦ 물 녹말은 조금씩 넣어 걸쭉하게 농도를 맞춘다.
- ⑧ 물 녹말 넣고 끓으면 참기름 넣기

TIP! 물 양 확인 후 물 녹말 넣기!



여러분이 느낀 2019 나 같이 산다

지난 1년 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나 같이 산다> 참여자 중
설문조사 응답자 총 16명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 거주지역



<나답게 제작한다> 수강생 거주지역



<나 같이 요리한다> 수강생 거주지역

> 기존 인근 지역(수원) 학교에 통학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과 달리,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나 같이 산다>는 용인, 화성시 등 참여자들의 지역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나 같이 산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나답게 제작한다> 만족도 조사



<나답게 요리한다> 만족도 조사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 항목 중 '진행방식' 항목이 타 조사항목보다 만족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강사와 충분한 협의 후 난이도를 조율하여 대상층
맞춤형 커리큘럼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1964〉 개관 64일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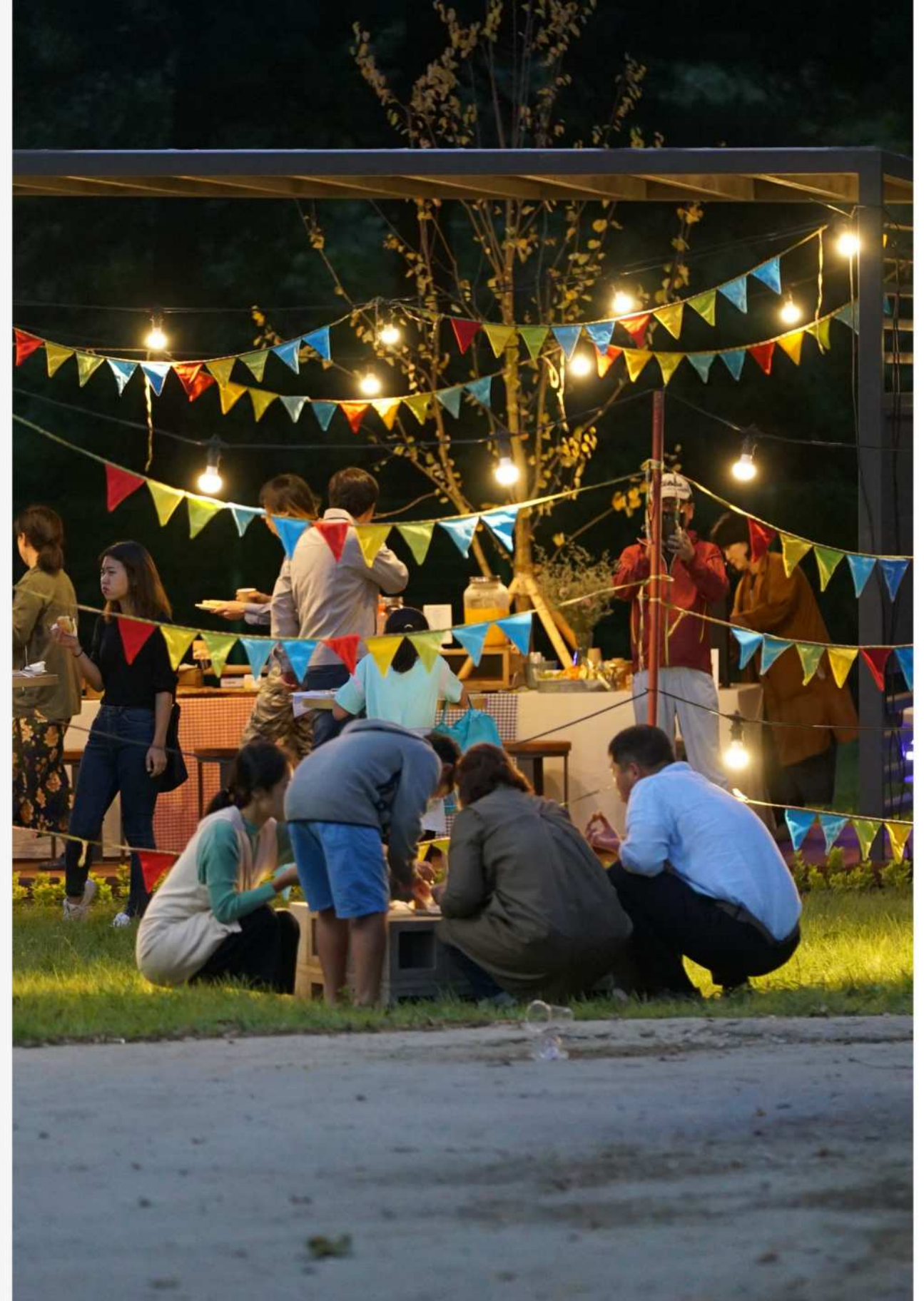
교육1964의 64일 기념 날,
‘독다’와 즐기면서 배운 시간.
#bgm_유사량과 쿨재즈 밴드의 공연

2019년 9월 21일(토) 〈교육1964〉개관 64일째 되던 날 진행된 오픈행사는 조금은 특별한 방식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방문객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육 참여에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시야 확장은 물론, 각자가 새로운 문화예술을 찾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된 〈교육1964〉개관 64일 행사는 〈비정상회담〉, 〈대화의 희열〉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독다’ 다니엘 린데만의 특강과 재즈보컬리스트 유사량과 쿨재즈밴드가 협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날 강연에는 ‘독일의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국과 독일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독일인들의 노력, 마을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진지한 담화가 이어졌습니다.

다니엘 린데만 특강 직후에는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에서 흥겨운 재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2014 재즈 매거진 〈Jazz people〉의 라이징 스타 선정 이후, 2017 〈대중상영화제〉, 2019 세종문화회관 〈김주원의 탱고발레〉 등 꾸준히 활동해 온 재즈보컬리스트 유사량과 해운대 재즈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공연 등 역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쿨재즈밴드의 협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 교육과 예술 향유가 공존했던 이번 행사에는 150명 이상의 도민들이 참여하여, 놀면서 배우는 교육을 향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가치 및 교육에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교육1964〉 개관 64일 행사 중 다니엘 린데만 특강



〈교육1964〉 개관 64일 행사 중 행사 중 유사랑 및 쿨재즈밴드 합연





〈교육1964〉개관 64일 행사 중 행사 중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 현장사진



〈교육1964〉개관 64일 행사 중 행사 중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 현장사진

Adieure 2019

아듀 2019: 다시 그리고 같이

Adieure 2019.

아듀 2019: 다시 그리고 같이

상상캠퍼스팀 기획파트장 오미미

올 한해 우리 상상캠퍼스에서 진행했던 교육프로그램들을 돌아보면 만족감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이전(移轉)과 상상캠퍼스의 교육특화 거점공간인 '교육1964'의 하반기 개관 등의변수로 인해 교육 공간 부족현상에 시달렸고,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주저함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계절별로 경기상상캠퍼스만의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전 세대 대상 <정규 프로그램>, 지역 중학교와 입주단체(그루버)가 연계한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노동의 맛'·'상상학교', 그리고 올해 첫 선을 보인 성인대상 교육·사회변화 프로젝트 <양손학교>, 여름방학 청소년들이 만들고 나눔을 실천한 특별프로그램 <나 같이 산다>를 통한 경기상상캠퍼스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2018년에 조성된 공공예술작품이자 자기교육 공간인 트리하우스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 체험과 '교육1964' 뒷마당에 조성한 커뮤니티 정원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의 오픈 행사를 진행하며 그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실현할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째, <정규프로그램>은 상상캠퍼스의 장점인 자연을 활용한 교육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을 실내체육, 그리고 중·장년층의 새로운 시작을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자유학년제는 내·외부의 강사진을 확충해 더욱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더불어 여름과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단체(그루버)와 인근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셋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손학교>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우리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실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넷째, <숲속 등지: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성찰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고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에서는 색다른 특강과 공연도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환류하는 시간을 마련해 경기도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교육1964'를 거점으로 "모두를 위한! 여기에만 있는! 즐기면서 배우는!" 교육을 목표로 경기도민들의 창의력과 문화 감수성을 자극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19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교육플랫폼 결과자료집
«모여놀: Learning by Doing»

발행처 (재)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현
사업총괄 문화예술본부장 서정문
기획총괄 경기상상캠퍼스팀장 임은옥
기획 오미미 김유빈 이선규
업무지원 배남우 박선희 이건희 최원영 이성열 조은정 기현석 이혜수 이서우
권다미 김현주 조서린 차미란 한민주 김소정 김윤희 김은정 노윤지
노혜령 이상화 오승호 차지민
행정지원 이명근 서은경 정승희 김미선 설정숙 유래경
촬영 917스튜디오 주현동
디자인 파도크리에이티브 박경원 박정진
발행일 2019년 12월 9일

© (재) 경기문화재단
이 책에 수록된 글과 도판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scampus.kr/>